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강 승 회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강 승 희



인 준 서

강승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의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이미지지각의 차이를 알아보며, 자극물 제작방법,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셔츠종류,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이며,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의복유형은 재킷, 점퍼, 스웨터 스타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의복유형㉠은 2가지 헤어스타일에 청바지와 테일러드 재킷, 점퍼를 각각 조합한 것으로, 의복색은 베이지색과 남색을 사용하였다. 재킷과 점퍼 속에 입은 셔츠종류도 티셔츠와 와이셔츠로 분류하였다. 의복유형㉡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점퍼와 스웨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의복색을 베이지색, 남색, 빨강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직업은 여대생과 직장여성으로 나누었고, 헤어스타일은 짧은형과 중간형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도구는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과 직장여성이었으며, 48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데 여대생 360명과 직장여성 266명으로 총 626명을 표집하였다. 1명의 피험자는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을 보고 각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출, 이원



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χ^2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남성의 캐주얼웨어의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단정성,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테일러드 재킷이 능력, 개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와 티셔츠가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단정성과 능력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활동성, 개성, 사교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보다 활동성, 개성, 사교성 요인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사진자극물은 개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점퍼 차림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점퍼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 단정하게 지각되었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있게, 남색이 개성있게 지각되었다. 그림자극물은 활동성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서 테일러드 재킷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있게, 테일러드 재킷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은 능력있고, 개성적으로 지각되었다. 남색 점퍼 속에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베이지색이 개성있게 평가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 모두에서 점퍼는 재킷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은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의복유형(점퍼, 스웨터)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스웨터 차림은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개성있게 지각되었고, 빨강색과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은 개성적이며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여대생은 베이지색을, 직장 여성은 남색을 단정한 색으로 평가하였다. 남색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짧은형



의 헤어스타일이, 남색 점퍼 차림의 경우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사진자극물은 단정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이 개성있게 지각되었고, 빨강 스웨터를 착용한 자극물은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림자극물은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활동적이고 개성있게, 빨강 점퍼를 착용한 경우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넷째, 빨강 스웨터를 입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자극물이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고, 와이셔츠 위에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하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자극물은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과 빨강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은 프리랜서로, 남색 테일러드 재킷과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은 전문직 종사자로, 스웨터를 착용한 자극물은 학생으로 추론되었다.

다섯째, 여대생은 능력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직장 여성들은 능력있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옷차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진이나 컴퓨터그림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는 의복단체에 따라 달리 지각되었으나 그림이 사진보다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으며, 사진이 컴퓨터그림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외모의 이미지 지각 연구에서는 사진, 그림, 컴퓨터그림 등의 자극물 제작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II. 이론적배경	5
1. 대인지각이론.....	5
2. 자극물 형태에 따른 이미지 지각.....	11
3. 의복 이미지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	1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5
1. 연구문제.....	35
2. 측정도구.....	36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45
IV. 결과 및 논의	46
1.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46
2.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48
3.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56
4.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	60



5.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65
6.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71
7.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75
8.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77
9.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79
10. 옷차림에 따른 연령 추론.....	84
11. 옷차림에 따른 직업 추론.....	87
12.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88
V. 결론	9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실험설계의 변인조작 내용	37
<표 2>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47
<표 3>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49
<표 4>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57
<표 5>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0
<표 6> 단정성,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에 따른 평균치.....	63
<표 7>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6
<표 8> 활동성,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69
<표 9>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71
<표 10>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에 따른 평균치.....	74
<표 11>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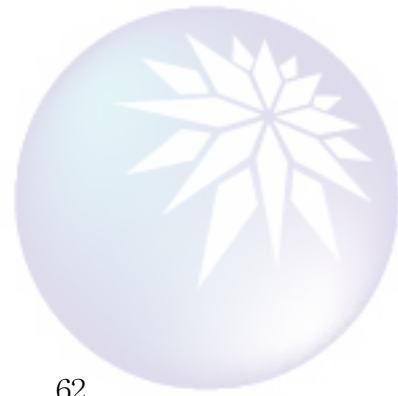


<표 12>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77
<표 13>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78
<표 14>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80
<표 15>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평균치.....	82
<표 16> 주효과의 유의한 결과.....	83
<표 17> 상호작용효과의 유의한 결과.....	83
<표 18>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84
<표 19> 옷차림에 대한 연령 추론 차이	85
<표 20> 자극물의 의복차림에 따른 직업 추론의 차이.....	87
<표 21>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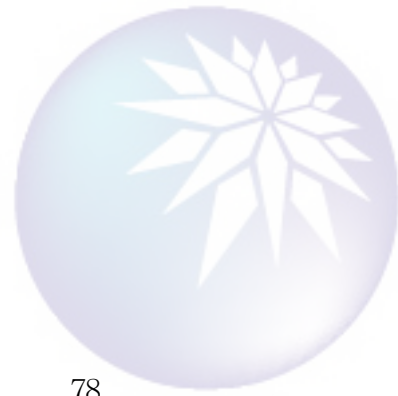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 단정성 요인의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1
<그림 2>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2
<그림 3> 활동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3
<그림 4>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3
<그림 5> 사교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4
<그림 6>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5
<그림 7> 사교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6
<그림 8>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8
<그림 9> 활동성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 형태	59
<그림 10> 능력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2



<그림 11> 개성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2
<그림 12> 단정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 따른 상호작용형태.....	64
<그림 13>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 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5
<그림 14>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점퍼, 스웨터)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8
<그림 15>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8
<그림 16> 활동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9
<그림 17>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0
<그림 18> 단정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2
<그림 19>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3
<그림 20>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4
<그림 21>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6



<그림 22>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8
<그림 23>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직업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80
<그림 24> 개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직업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81
<그림 25>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82
<그림 26> 사진자극물 1-8.....	부록
<그림 27> 사진자극물 9-16.....	부록
<그림 28> 사진자극물 17-24.....	부록
<그림 29> 그림자극물 1-8.....	부록
<그림 30> 그림자극물 9-16.....	부록
<그림 31> 그림자극물 17-24.....	부록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인간의 삶은 주로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어간다. 즉 가정, 학교, 동호회, 직장 등 어디서나 함께 모이고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은 만남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데는 별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상대방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상을 형성 할 수 있다. Allport(1937)는 짧은 시간의 지각이 이루어질 때 처음 본 사람의 나이, 직업, 계층, 성격, 깔끔함, 성실성이 어느 정도 평가된다고 하였다.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서에 의해 평가된다. 이때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신체조건과 함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남성복도 패션의 변화에 따른 편안한 스타일과 개성을 중시한 패션성이 강화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여가를 즐기는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캐주얼웨어가 남성복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한국섬유신문 2002, 3. 21).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외모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된다. 특히 헤어스타일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변화가 가능하고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재숙, 류지원, 2004)는 장점으로 인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패션의 변화는 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색은 인간의 시각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디자인 요소로, 의복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고, 소비자가 의복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색채 선호 경향은 연령, 성별, 생활환경, 직업, 유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타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혜자, 1971; 김구자, 2002).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캐주얼웨어를 의복유형, 의복색, 셔츠종류로 변화시킨 의복단서와 헤어스타일의 길이를 변화시킨 외모단서를 사용하여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는 자극물을 제시하고 자극물의 이미지를 지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극물 제작은 일반적으로 사진(고애란, 1990; 이은미, 1992; 이선경, 1993; 이미연, 1999; 황미선, 2004)과 그림(이주현, 1990; 남미우, 1992; 이정교, 2000)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자극물의 지각 차이에 대한 검증 없이 자극물을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효과를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함으로써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들이 표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의복을 선택, 사용하는데 대한 이미지관리 측면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의복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셔츠종류 등의 외모 단서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남성의 이미지관리와 인상형성 연구를 위한 기초자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목적

의복은 착용자의 개인적 속성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의복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의복단서인 스타일, 색상, 디테일, 무늬를 조작하여 제시하거나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한 후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 대한 연구는 의복의 다양성, 의복색, 신체적 조건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의 의복유형을 재킷, 점퍼, 스웨터 스타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의복유형④는 청바지와 테일러드 재킷, 점퍼를 각각 조합한 것으로, 의복 색은 베이지색과 남색을 사용하였다. 재킷과 점퍼 속에 착용한 셔츠종류는 티셔츠와 와이셔츠로 분류하였고, 헤어스타일도 짧은형과 중간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의복유형⑤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점퍼와 스웨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의복 색을 베이지색, 남색, 빨강색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관찰자(피험자)의 직업은 여대생과 직장여성 나누었고, 헤어스타일도 짧은형과 중간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의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며, 자극물 제작방법과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셔츠종류,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이론

인간행동의 대부분은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외부정보를 기초로 한 결과 들이다.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자극의 경험을 말하며 지각은 감각 등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수용, 처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성격, 능력, 의도, 감정 및 생각을 살피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사물을 지각하는데 있어 물리적 속성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락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오세진 외, 1999). 특히 지각 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이라 하는데, 이는 그 대상 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양은, 1982).

타인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양한 단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주현, 1990). 그러나 우리는 많은 자극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지각에서는 지각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분명한 기준이 없다. 지각 대상자가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지



각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단서를 조작해서 관찰자 내지 지각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권석만 외, 2002).

첫인상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무의식적인 접촉을 하는 동안에 형성되는 정보에 대한 인지를 말한다(송선옥, 1981). 타인에 대한 첫인상은 그가 좋은 사람인지,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임창재, 1998).

사람들은 통상 매우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적 특성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결론을 짓기 쉽다.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인상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며, 원래의 인상과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정보가 추가 될 경우 그 정보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김정희 외, 2002).

대인지각을 할 때 사용되는 정보는 직접 대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얼굴 생김새와 얼굴 표정, 신체의 크기, 체형, 자세, 옷차림, 몸짓, 걸음걸이, 행동거지, 말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말의 빠르기 등이 있다.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대인지각의 단서들을 동시에 접하게 될 때,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1) 형태주의적 접근

시각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가장 일차적인 수단은 형태 지각을 통해서이



다. 때로는 색이나 크기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는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은 형태이다. 이것은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지각적 게슈탈트(gestalt)인 것이다(장현갑 외, 1999).

Solomon Asch(1952)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원리가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적용된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 사람의 속성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히 합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각 요소들이 전체적인 패턴과 관련되어 해석된 전체적 구성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Asch는 한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가상 인물 성격을 묘사하는 특성 목록을 주고 그 인물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게 하였다. 제시된 특성들은 ‘지능이 높다. 재주가 있다. 근면하다. 따뜻하다. 단호하다. 실제적이다. 조심스럽다.’ 등이었다. 다른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따뜻하다’ 대신 ‘차갑다’를 넣어서 제시하고 인상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따뜻하다’라고 한 경우는 그 사람을 관대하고 유쾌하며 인간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였음에 비해, ‘차갑다’라고 한 경우에는 정반대의 인상이 형성되었다. 다른 특성을 반대로 바꾸어 제시했을 때는 평가된 인상에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정희 외, 2002). ‘따뜻하다-차갑다’라는 특성을 중심특징이라고 하고 그 외의 다른 특성을 주변특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변특질들은 중심특질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특성들 중 어떤 것이 중심특질(central trait)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며, 주변특성들은 이에 일치



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특성들이 가지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주어지는 상황 혹은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이은미, 1992).

즉 형태주의 이론은 대인지각을 할 때 개인이 각기 다른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형태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지, 2003).

2) 내현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 여러 자료가 없어도 한,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표적 인물에 대한 추측을 한다. 개개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성격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대인 경험을 통해 터득했거나 민간속설, 관상학, 독서 등을 통해서 믿게 된 것들인데, 이들을 내현 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이것을 학자들이 논하는 성격이론이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나름대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격판단의 개인적인 틀이다(한규적, 2004). 즉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해석한다. 여기에는 우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람 보는 눈이 관여한다.

내현성격 이론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일반화시켜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거기서 인상이 형성되며 이것을 토대로 성격을 추리하여 성격의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성격 특성을 갖는 사람은 특정한 기타 성격특성을 함께 갖는다는 성격판단의 틀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여 각자는 나름대로 타인의 성격을 판단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이은미, 1992). 이 이론은 사람들의 성격특성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기초로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지각대상자가 행동할 당시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 다른 성격특성들까지도 추리한다고 설명한다(강혜원, 1995). 지각자들은 일련의 지각된 특성들과 그 관계에 대한 개념에 따라 제한된 지식에 기초하며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애란, 1990). 즉 내현성격이론 형성은 문화적 통념이나 규범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크다(강봉규, 1999).

Schneider, Hastorf와 Ellsworth(1979)는 내현성격이론을 성격특성 간의 상호관련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 의복스타일, 비언어적 단서 및 신체적 특성의 상호연관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복연구에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 고정관념 (Stereotype)

대인지각에서 단서는 대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정한 도식 또는 스키마



(schema)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이 스키마가 우리 마음 속에 인상이나 예측을 만들어 낸다. 인상형성에서 특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스키마는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stereotype)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천석만 외, 2002).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성격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는 믿음인데,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극 의미에 대해서 많은 유사한 기대들을 발달시킬 것이며, 모든 종류의 단서들에 대한 유사한 해석들을 배울 것이다. 결과로 생긴 고정관념들도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에 매우 유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경험들을 쉽게 범주화 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이 합당한 근거 없이 통념화 된 것들이다(김정희 외, 2002).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그 사람의 일들을 추론하며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택적으로 또는 부정확하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일들을 기억하며 최초의 고정관념을 지속시킨다(임창재, 1998).

고정관념의 형성은 흔히 첫인상에 따라 이루어지며 혹은 반대로 첫 인상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기도 한다(Horn 과 Gurel, 1981).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시각적으로 전달되므로 신체의 골격이나 피부색은 물론 의복에 따라서도 추측에 의하여 연상되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마련이다(이인자 외 2001). 특정한 의복유형은 그 의복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강혜원, 1995). 이에 대한 연구로 1960년대 말에서 70년에 초에 장발에 턱수염을 기른 젊은이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마약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고정관념화 되었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학생들에게 3명의 남자 의복 착용자를 보여주고 그 그림과 정치적 행동주의(자유 또는 보수) 및 마리화나의 흡연 여부를 관련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테일러드 재킷과 넥타이 차림을 보수주의자로, 인습적인 옷차림에서 벗어난 짧은 작업용 셔츠,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의 모습은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어 의복의 스타일과 그에 따른 행동적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밝혔다(Horn 과 Gurel, 1981).

2. 자극물 형태에 따른 이미지 지각

1) 사진자극물의 이미지 지각

최초로 인상형성에 있어서 의복의 영향을 밝히려는 Hout(1954)의 연구는 실제 인물사진들의 얼굴과 옷을 입은 몸체를 잘라서 짝지어 맞춘 사진들을 가지고 평가시켰다. 그 결과 같은 얼굴도 다른 의복유형에 따라 모델의 개인적 특성(지성적, 협동적)을 다르게 평가하였다.

Douty(1963)는 실제 모델들이 4가지 다른 의복을 입은 칼라 슬라이드를 사용하였는데 의복유형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사회적 지위와 음-양 성격특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ng, Salusso-Deonier와 Larnz(1983)는 사교복과 사무복에 대하여 성인 남녀의 지각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자극물은 사교복 3벌과 사무복 3벌의 칼라 슬라이드를 사용하였다. Johnson, Nagasawa와 Peters(1977)는 여대생의 사교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 의복스타



일을 연구하기 위해 유행성 차원에서 다른 2개의 의복스타일을 사진 자극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은미(1992)는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장을 착용한 남자 모델의 칼라사진을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의복단서 4가지(정장스타일, 정장 색, 넥타이 색, 착용자 연령)를 각각 2수준으로 조작한 16장의 자극물로 구성되었다.

신소진(1994)의 신체 노출을 달리한 남성캐주얼웨어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기본형 1개, 상의노출 4개, 하의노출 7개로 된 총 12개의 사진(3X5cm) 자극물 이었다. 상의는 노출 없는 형태, 가슴, 허리, 팔, 몸의 윤곽선으로 5가지 형이며, 하의는 노출 없는 형, 구멍 난 청바지, 밀착된 청바지, 스판덱스바지 스타일에 긴 바지와 짧은 바지의 두 가지로 변화를 준 8가지 형 이었다. 헤어스타일은 무스나 헤어로션을 바르지 않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며 장신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캐주얼화를 신고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배경에는 인물이 배제되었다.

2) 컴퓨터 사용에 의한 사진자극물의 이미지 지각

송선옥(1981)의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20대 중반의 남자 의복착용자의 칼라사진(15X28cm)으로 조작되었다. 의복유형(정장, 세미캐주얼, 캐주얼), 얼굴형(매력적, 중간 매력적, 비 매력적), 체형(세장형, 근육형, 비만형)으로 분류하여 제작되었다. 체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조정되었으며 총 27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얼굴형은 친근성에 영향을 주었고, 의복유형은 활동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미(1995)의 연구에서는 총 12개의 자극물이 사용되었는데 의복의 격식차림 수준(정장차림, 재킷차림, 점퍼차림), 의복색(감색, 벽돌색), 맥락(교실, 야외)등을 CAD작업을 통해 조작하였다. 자극물은 의복착용자의 키, 얼굴모양, 자세가 통제된 남자 의복착용자의 모습으로 사진으로 제작되었다. 그 결과 의복 격식차림과 의복색은 맥락과 함께 착용자의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자의 성별에 의한 인상차이도 지각되었다.

박영실(1999)의 연구에서는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에 입력한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의복유형 6가지, 칼라변화 10가지, 배경 4가지를 합성하여 총 240장의 사진자극물(17.5X12.5cm)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생활공간, 의복실루엣, 의복색을 중심으로 한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의복이미지는 의복실루엣, 의복색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 의복을 입고 있는 생활공간에 따라서도 다르며 생활공간, 의복실루엣, 의복색의 조합에 의해 각각 다른 이미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지각되었다.

윤지성(2001)의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사용된 자극물은 의복유형은 정장과 캐주얼로 분류하였고 가발은 생머리와 퍼머넌트 머리로 구분하였고, 가발의 길이에 따라 긴머리, 단발머리, 컷트머리 3가지로 나누어 총12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각 사진들은 스캔 받은 후 포토샵과 4D박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머리 색상을 검정, 갈색, 붉은색으로 변화시켜 총 36장의 자극물을 조작하였으며 A4크기로 확대 출력한 후 재촬영하여 3X4cm크기로 조절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도 컬러의 변화나 의상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캐주얼과 정장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칼라 또한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도주연(1992)의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 비교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헤어스타일사진과 실제 헤어스타일사진, 얼굴형태인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헤어스타일화 3가지 방법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머리상태(직모, 컬), 머리길이(짧은머리, 중간머리, 긴머리), 앞머리 유무(뒤로 넘긴머리, 앞으로 내린 머리), 가리마 위치(가리마 없는 머리, 왼쪽가리마, 가운데가리마) 등 총 10가지의 헤어스타일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 비교와 얼굴형의 형태변화비교 모두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헤어스타일사진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화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헤어스타일사진 모두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그림자극물의 이미지 지각

Horn과 Gurel(1981)은 젊은 남자 3명의 선 그림을 이용하여 외모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관례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은 보수적으로 지각되었고, 인습적인 것에서 벗어난 옷차림은 개방적인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각되어졌다.

Sweat와 Zentner(1985)는 4가지 이미지의 여성의복과 이에 어울리는 머리스타일로 조작한 자극물로 착용에 대한 인상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의복스타일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 추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ek(1986)은 4가지 여성의복 스타일을 흑백의 선 그림으로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추론되는 성격특성을 비교하였다.

김광경(1991)의 연구에서는 의복유형(suit, blouse·skirt-)과 색(감색, 분홍색)이 조화된 suit 8개, blouse·skirt 12개를 수채화물감을 사용해 그림으로 그린 후 그림을 찍은 사진(5X7inch)으로 완성하였다. 의복 착용자의 자세, 얼굴, 머리 모양, 배경, 연령은 일정하게 통제하였고,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인상을 형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서들은 의복을 포함한 외모단서들이며, 특히 남성적·여성적 이미지의 직장의복에서 제일 먼저 추론하는 특성은 남성적·여성적 성격특성이고, 그 다음 그 외에 성격특성들을 보충하여 의복착용자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의복을 착용한 여성의 선 그림을 사진(5X7inch)으로 제작한 것으로 의복착용자의 자세, 얼굴 및 머리형태, 배경은 일정하게 통제되었다. 의복범주(한복, 서양의복), 유행성 차원(최신유행, 클래식), 연령(젊은이, 노인)으로 분류되어 총 8개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한복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에 비하여 개화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인상차원에서 긍정적이었으며 젊은 의복 착용자는 4개의 인상차원에서 모두 노인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류지은(2001)은 여성의 의복스타일(섹시, 매니쉬, 페미닌, 드라마틱, 엘레강스-클래식, 캐주얼)을 6가지로 표현한 선그림의 자극물을 이용하여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남성은 섹시한 의복에 호의적이고, 여성은 매니쉬·드라마틱한 의복에 호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사진 자극물의 경우 다른 자극물에 비해 필요한 여러 단서



들을 제작하거나 구매 또는 준비과정이 길고 소요 경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자극물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극물의 경우는 색의 변화(의복색, 머리색 등), 형태의 변형(체형, 머리길이), 장소 등의 변화가 컴퓨터에 의해 용이해지므로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자극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의복 이미지 지각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1) 의복의 이미지 지각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은 학습되어 온 의복 속성의 영향을 받으며 관찰자의 과거경험,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각의 대상이 되는 의복에 따른 여러 속성들(의복유형, 형태, 재질, 색 등)과 의복착용자의 체형(체격조건), 얼굴이 주는 인상, 연령, 성별 등 지각대상자에 의한 요소가 기본적인 단서가 된다. 여기에 판단의 주체인 지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성격, 심리적 특성, 인지구조, 성별, 연령 등 지각자에 대한 요소와 의복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등이 더해져 보다 다양한 판단의 결과가 나타난다.

의복 이미지 지각의 단서가 다양한 만큼 이론도 다양하며, 이러한 이론



에 근거한 의복연구 또한 여러 단서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하여 시도되어왔다. 이와 같이 여러 단서를 통한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각 대상자 변인

피지각자 변인에 해당되며 피지각자의 시각적 특징이 해당된다. 이 시각적 특징에는 지각대상의 의복형태, 색상 등이 포함된다(Lennon & Davis, 1989).

① 의복유형과 이미지

Bell(1991)은 남성복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격식차림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수적 스타일은 지적으로, 대담한 스타일은 사교적으로 평가하였고 캐주얼 스타일은 인기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은미(1992)는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남성 정장차림은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비언어적 단서로 사용되며, 의복의 세부적 측면, 즉 정장색, 넥타이색 등과 착용자의 연령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켜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유행색 여부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에 관계없이 정장은 품위있고 호감이 가고 지성적이며 권위적인 인상을 주었으나 캐주얼은 활동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선경(1993)의 연구에서 의복유형은 지적, 매력적 인상에서 영향이 컸으며 인물의 특징과 의복스타일의 특징은 매력성, 성공성 평가의 단서가 되며 직업적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남성복 유형에 대한 직업측면이 고정관념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회사원 유형의 감색 싱글정장과 고위직 유형의 조끼가 있는 회색 싱글정장은 일반 사무직으로, 세일즈맨 유형의 카키색 더블정장은 일반사무직과 세일즈맨 또는 외판원으로, 연예인 유형의 여자색 더블정장은 연예인과 서비스직 근로자로, 화가 유형의 청색 진(jean) 점퍼는 화가와 생산기능직으로, 노동자 유형의 카키색 점퍼는 생산기능직으로 나타나 고위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선정한 직업과 일치된 직업추론 경향을 보였다.

김재희(1994)는 남성의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테일러드 재킷, 바지, 조끼, 넥타이의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바지의 접은 단 유무를 제외하고 모든 의복스타일에서 유행정보다는 전통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캐주얼 재킷에서는 전통형 의복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평가되었다.

이지현(1993)은 남학생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칼라(collar) 형태를 선정하고 가장 많이 착용하는 외의(캐주얼 재킷, 점퍼)를 입혀 그에 대한 인상을 연구하



었는데 재킷의 버튼다운 칼라셔츠는 점퍼에 버튼다운 칼라셔츠보다 매우 지적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운드형의 넥라인은 점퍼가 외의로 입
혀졌을 때 더욱 활동적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박순천, 이순홍(2003)의 중년 남성 정장수트의 여밈, 무늬, 체형에 따른 의
복디자인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마른형과 표준형은 싱글 여밈의 경
우 줄무늬일 때 젊고, 현대적으로 평가하였고, 민무늬일 때 가장 노숙하게 평
가하였다. 비만형은 싱글 여밈의 경우 체크무늬를 가장 친근하지 않다고 평가
하였다.

Rees, Williams와 Giles(197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면접시험의 경우 넥
타이를 맨 모습이 더 지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으나 캠퍼스 내에서는 넥타이
를 매지 않은 경우가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정교(2000)는 의사가운 착용자의 경우 기존의 가운 길이이면서 흰색이고
테일러드칼라 인 경우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로 지각하였고,
허벅지 길이의 의사가운 착용자를 가장 현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보수성인상에서는 가운색상이 영향을 나타내 파란색 의사가운 착
용자를 가장 보수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정현주(2002)는 우리 옷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남녀공학 1,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옷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교복 이미지를 연구하였는데 외관성
이미지가 교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ehling(1995)은 정장 스타일(Mello/Cool - 정장슈트, 블라우스, 스타킹과
정장 구두), 고급 스타일(Preppy - 스웨터, 스커트, 단화), 최신유행 스타일(Up
to Date - 브랜드 청바지와 재킷, 브랜드 운동화), 비규범적 스타일(Dividends



- 가죽스커트, 재킷, 부츠), 저소득층(Poor People - 로고가 없는 티셔츠, 낡은 청바지, 상표없는 스니커즈)으로 조작한 고등학생 등교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정장스타일 착용자가 다른 스타일보다 지능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영재(2001)는 캠퍼스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하의 패션아이템을 조사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하의는 면바지, 청바지, 힙합바지, 체크바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은 청바지, 치마, 정장바지, 힙합바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의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니트 및 니트가디건, 남방 및 셔츠, 티셔츠, 점퍼, 조끼, 캐주얼 재킷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은 니트 및 니트가디건, 남방 및 셔츠, 티셔츠까지는 남자 대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그 다음으로는 스웨터, 정장, 캐주얼 재킷, 블라우스의 순서로 착용되었다. 남녀 대학생의 패션 코디네이션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캐주얼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페미닌, 매니시한 감각의 정장스타일도 나타나 남자 대학생에 비해 다양한 스타일이 착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미선, 이명희(2005)의 남녀대학생의 캠퍼스웨어 이미지 연구에서 활동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스웨트셔츠, 티셔츠, 짧은 바지, 점퍼 등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단정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남자는 셔츠 위에 스웨터 착용, 여자는 니트가디건 및 정장스타일을 입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의복스타일과 관찰자 특성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 방희선, 고애란(1999)의 연구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스타일이 세련된 인상을 형성하였고, 무난하고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성실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옥, 이인자(2001)의 연구에서는 의복유형이 남



자의 인상 중 활동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aek(1986)은 4가지 여성의복 스타일(대담한, 보수적인, 드레시한, 캐주얼한)을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추론되는 성격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가 가장 성실하지는 못하나 가장 매력있고 개인주의적이라고 평가되었다. Sweat과 Zentner(1985)는 여성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비인습적이고, 로맨틱한 스타일과 내추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사회성이 높으며, 클래식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인습적이며 격식을 차리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Bulter와 Rossel(1989)은 여교사가 착용한 의복유형(suit, dress, pants, jean)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평가를 연구하였는데, 진(jean)을 착용한 교사는 재미있고 접근이 쉬운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지적 능력은 낮고 선생님다운 외모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트를 착용한 교사는 접근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며 권위있는 교사의 외모로 지각되었다.

Thurston, Lennon과 Clayton(199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문적 이미지가 의복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원피스보다 수트가 전문적 이미지가 높았고 최신유행 장식이 일반유행 장식, 클래식 장식보다 전문적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슈트나 드레스 착용자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블라우스·팬츠 착용자는 매력이 있으며 깔끔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명희(2002)는 20대 여성의 인상형성에 있어 의복 유형 중 수트차림은 셔츠/바지차림보다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활동성, 능력, 화친 요인은 낮게 지각되었다. 셔츠/바지를 착용한 인물이 수트 착용자보다 지각자들에게 부드럽고, 상냥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Gibbins와 Coney(1981)는 스커트 길이, 폭, 티셔츠 형태를 요인설계로 연구한 결과, 허벅지 길이의 스커트는 짧고 외향적인 것으로, 목이 깊게 파인 티셔츠는 외향적이고 성적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미연,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 웨딩드레스의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소재, 장식이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을 좌우하는 의복단서로 나타났다. 돛형 실루엣과 벨형실루엣, 스위트-하트네크라인, 7부 레이스 러플 슬리브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에 영향력이 컸으며, 돛형실루엣과 벨형실루엣, 7부 레이스 러플 슬리브는 여성적인 인상을 크게 했으며, 귀여움성 차원은 돛형실루엣과 벨형실루엣, 오프-숄더네크라인, 7부 레이스 러플 슬리브에 허리의 리본장식이 영향력이 크게 지각되었다. 신은정(2000)의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이미지는 세련된, 우아한, 밝고 화사한, 사랑스럽고 정숙한,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개성있고 섹시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강혜원, 이주현(1990)은 의복 유형으로서 한복 및 양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조사하였는데, 평가 요인에서는 양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품위 요인에서는 한복 착용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숙(1991)은 노년 여성이 한복 착용자를 서양의복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전호경, 황선진(1998)은 임신부의 의복 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이미숙(1995)은 아동의 협동 요인이 의복의 격식차림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고 하였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 유형(dress, suit, sports)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착용자에 대한 호감 평가에서 의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 유형은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



향을 미쳤다.

이주현 조공호(1995)는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차원은 의복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수트 착용자의 인상에서는 능력-활동성, 깔끔함-평가, 품위, 외모-매력, 주의집중성의 5개차원이, 드레스 착용자에서는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매력-평가, 품위, 깔끔함, 부드러움의 6개 차원이, 팬츠-블라우스 착용자에서는 평가-외모, 품위,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부드러움, 적극성의 6개 차원으로 도출되어 의복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인상형성에 쓰이는 단서들 가운데서 가장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입은 의복이다. 그러나 의복은 쉽게 바꾸어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은 사람의 내면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데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단서가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눈에 띄는 의복과 같은 단서를 토대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된다(권석만, 2002).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여성복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여러 형태로 조합한 단서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의복의 세부적인 측면인 디자인, 색, 장식, 길이, 폭 등에 의해 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이미지 연구 또한 의복스타일과 유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장과 캐주얼웨어가 주로 연구되었으며 기타로 의사가운, 교복 등이 있었다. 체형, 얼굴, 의복색, 유행 등이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었다.



② 의복색과 이미지

김윤경, 강경자(2003)는 색은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 중 복식의 미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로서 지각되며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 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인상형성 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색채는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소비자의 의복 선택 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식디자인의 효과적 실현에 있어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도 문화나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남미우(1992)의 연구에서 남자의복에서 색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하며, 남자의복에 사용되는 색은 크게 3가지로 기본색(basic), 준기본색(semi-basic), 유행색(fashion color)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색(basic color)은 남자의복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남성색이며, 준 기본색은 매년 남자 의복 부분에서 항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유행색은 기본색이나 준 기본색과 맞지 않는 색이며, 대중적이지 않다가도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하면 유행색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행색이 대중적이 된다 해도 기본색과 준 기본색은 사라지지 않고 공존한다고 하



었다, 기본색 중 검은색은 엄격한 색(stark color)으로 가장 격식 차린 정도를 나타내며 감색(navy blue)은 덜 격식차린(formal) 것이나 차가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어두운 회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Molloy(1978)는 남성복에서 감색이 정장색으로 가장 좋고 그 다음 회색 등이 적합하며 같은 색이라도 연한 색보다 진한 색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넥타이 색은 수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지(2003)는 남성 선거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색 재킷-파랑색 셔츠-노랑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역동적인 인상이 형성되었고 회색/검정색 재킷-파랑색 셔츠-복합색 넥타이가 가장 역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성 요인은 감색/검정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높았고, 감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친숙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이향미, 김재숙(1998)은 의복의 격식차림과 의복색에 따른 남성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영향력은 의복색, 지각자 성별, 맥락, 의복 격식차림 순으로 나타나 의복색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의복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사교적 차원에서 좀 더 큰 인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감색 의복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는 남색이 남성적이고 침착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임지영(1996)의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능력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감색양복에 유사한 배색의 체크, 페이즐리, 줄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독특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된 색의 추상무늬나 꽃무늬 넥타이를, 온유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의 체크무늬나 꽃무늬, 추상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매력있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감색양복에는 유사 색의 넥타이를, 베이지색 양복에는 대비 색의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유경(1999)은 야구 유니폼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연구하였는데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능력있고 남성적이나 선호평가가 차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남색 상하의 착용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빨강색 상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 회색 상하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능력없고 비활동적이며 현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Mahannah는 의복의 색상(빨강, 파랑)과 의복착용자의 머리색(blond, black)이 의복착용자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음-양의 성격특성 지각은 머리색과 의복 색상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빨간색 의복에 검은 머리가 조합되었을 때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Horn & Gurel, 1981).

김광경(1991)은 직장 여성의 남성적·여성적 의복에 관한 연구에서 감색과 분홍의 수트 색은 활동성과 능력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평



가요인에만 영향을 미쳐, 남색 수트는 분홍색 수트보다 딱딱하고 차갑고 어둡고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반면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서는 능력요인에 영향을 미쳐 검색 스커트가 분홍색 스커트보다 노련하고 전문적이며 능력 있고 딱딱하고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재킷 색에 따른 여성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자는 빨강 재킷을 가장 능력 있게 보았고 흰색, 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은 능력 없게 지각하였다. 평가요인에서 빨강색 재킷은 흰색 및 회색 재킷을 착용한 경우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되었고, 젊음요인에서 빨강색 재킷은 흰색, 회색, 검정보다 젊게 지각되었다. 여성적 요인에서 빨강색 재킷과 흰색 재킷을 사용한 경우는 비교적 여성적으로 지각되었고, 회색과 검정색 재킷은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능력-활동성차원에서 파란색 수트 착용자는 빨강, 노랑, 하양, 검정색 수트 착용자보다 능력있고 활동적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주의집중성 차원에서 빨강색 수트 착용자가 파랑, 노랑, 하양, 검정 수트 착용자보다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깔끔함 차원에서 노란색 수트의 착용자는 다른 수트 착용자에 비해 더 깔끔하고 밝은 인상으로, 검정색 수트는 가장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이주현, 강혜원(1995)은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드레스의 경우 검정색 드레스 착용자는 가장 사무적이고 격식을 차렸으며 나이든 사람, 가장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며 빨강색 드레스 착용자는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팬츠의 경우



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였으며 파란색 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가장 격식을 덜 차렸으며 어린 사람,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가장 매력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Francis와 Evans(1987)는 짙은 색 의복이 관리직 직원 여성의 능력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김미영(2002)의 20, 40대 여성 집단의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 색 선호도는 파랑 계열과 남보라 계열 등의 한색 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의복색 선호도는 무채색 계열과 갈색 계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주현(1990)은 의복단서에 대한 연구에서 파란색 의복 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고, 빨강색 의복 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상을 주며, 검정색 의복 착용자는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의 형태를 동일하게 한 경우 의복색채의 변화에 따라 파랑과 보라색은 성숙한 이미지로 노랑은 어려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라색이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빨강과 보라색이 현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색계 색채가 진출성, 화려함으로 현시성이 높은 반면 한색계는 후퇴, 진정의 효과로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숙(1996)은 색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빨강은 강한, 따뜻한,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다른 색보다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으며, 남색은 강한, 냉정한, 남성적인, 침착한, 어두운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 조합의 연구에서 온유성 차원의 인상에서 중년여성들은 의복 색에 상관없이 온유한 이미지로 지각한 데 반해서 여대생들은 유채색의 의복을 밝고 부드러운 것으로 무채색의 의복을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하여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2002)의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에서 배색연출에 따른 시각적 감성을 비교해 보면, 대조배색은 귀여운 감성으로, 유사배색은 매력적이면서 무난한 감성으로, 악센트배색은 대담하면서도 딱딱한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의복 배색연출에 따른 시각적 감성을 비교해보면, 유채색 계열과 유채색 계열의 배색은 귀여우면서 부드러운 감성으로, 유채색 계열과 무채색 계열의 배색은 대담한 감성으로, 무채색 계열과 무채색 계열의 배색은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은 얼굴색과 의복 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선택시 형태와 재질보다 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색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고 하였다. 평가성 인자는 무채색 계열이 노랑, 연두 계열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활동성 인자는 밝은 의복 색이 가볍고 밝고 산뜻하여 활동적인 것으로, 어두운 의복색이 무겁고 어둡고 칙칙하여 비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순색이 어려워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나이들어 보이는 인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을 색의 속성별로 분류하여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과 무채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평가차원과 조화차원에서 무채색이 유채색 의복색보다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았고, 활동차원에서는 유채색이 무채색 의복색보다 활동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 의복색의 연구는 기본색, 유행색의 영향, 넥타이와 양복의 배색, 야구 유니폼의 배색, 의복색과 머리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 의복색에 비해 색이 한정적이고 의복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다른 변인과 관련지어 복합적으로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따르고 비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색이 단일 단서에 의한 결과 뿐 만 아니라 의복 형태, 맥락 등 다른 변인과 함께 전체적인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색은 다른 변인과 관련지어 복합적으로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색채간의 배색효과에 의해서 보다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의복형태와의 조합에 의해서 보다 다양한 차원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의복색은 다른 여러 변인들과 함께 착용자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중있는 의복단서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2) 지각자 변인



대인지각은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지각되는데 이는 지각자에 따라 판단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각자 변인에는 지각자의 신체적 특성(시각이나 청각의 정확성), 심리적 특성(목적, 가치관, 성격), 인지적 구조의 복잡성(기억, 지식) 등이 포함된다(Schneider 등, 1979).

고애란, 강혜원(1983)은 전통적인 싱글양복이 사무직·관리직·전문직의 정신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며, 젊은 층은 캐주얼 재킷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Bell(1991)의 연구에서 남성복의 경우에 있어 젊은 사람들은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노인들은 격식차린 또는 보수적 스타일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은, 이명희(1999)의 연구에서 직장 남성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지배성이 높을수록 검색계통 신사복과 빨간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1993)는 대학생과 일반인의 관념 선호색과 착용 선호색간의 유사성 연구에서 관념 선호색은 착용 선호색을 반영하며, 파랑과 남색이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는 색이라고 하였다.

이은미(1992)는 남성정장 착용자의 연령(청년, 중년)과 의복단서(정장 스타일, 정장 색, 넥타이 색)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에서 관찰자 집단을 20대와 40·50대 남자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40·50대 관찰자 집단은 20대에 비해 정장의 색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착용자 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검색 착용자보다 더 보기 좋고 세련되고 능력 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럽고 덜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넥타이 색은 중년 착용자의 경우 2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지각하였고, 40·5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대비 색 넥타이의 조화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지각하였다.

송선옥, 이인자(2001)의 남자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멋스러움은 여자가, 강인성은 남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멋스러움, 활동성, 강인성은 40대가 20, 30대보다 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교(2000)는 관찰자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이 수련의사가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현대성 인상에서는 대졸이상의 관찰자 집단이 수련의사가운 착용자를 더 현대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전문성 인상에서는 40대가 수련의사가운 착용자를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보수성 인상에서는 남자가 수련의사가운 착용자를 더 보수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이명희(1993)는 한국과 미국의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의복이미지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한국 대학생은 캐주얼한 이미지를 미국 대학생들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학생은 밝은 이미지를 여학생은 현대적인 이미지, 미국의 경우 남학생은 성적인 이미지 여학생은 유행에 앞선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ng, Salusso-Deonier와 Larntz(1983)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사교복(social dress)과 직업적 역할을 나타내는 사무복(business dress)에 대하여 성인 남녀의 지각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은 여자보다 모든 의복을 비교적 성적 매력이 있고 우아하게 보았고, 또 평가적인 차원에서는 여성보다 사무복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사교복은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



무복의 이미지는 사교복의 이미지보다 남녀 사이에 더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며 사무복은 여성에게서 더 명확히 정의되었다

고애란(1990)의 연구에서는 의복 변인으로 수트의 색과 노출정도의 변화를 사용하였고, 지각자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정숙성 변인을 조작한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지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 정도를 측정하였다. 40대 남자집단은 여자 대학생 집단, 남자 대학생 집단, 40대 여자 집단과는 달리 동일한 무릎길이 스커트나 블라우스 차림에서의 검정색 수트에 비해 빨강색 수트를 품위없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무릎길이 스커트와 스카프 차림의 검정색 수트에 대해서는 무릎길이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의 검정색 수트와 비슷한 정도로 품위있게 지각하였다. 즉 40대 남자집단에서만 무릎길이 스커트 차림에서의 품위요인 인상에 대해 수트의 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유경숙(1998)의 외향성-내향성, 성별 및 연령과 의복이미지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는 독특한 이미지, 고귀한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평범하고 서민적이며 점잖은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다. 10대는 독특하고 고귀하며 발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평범하고 서민적이며 점잖은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류지은(2001)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섹시한 의복에 호의적이고, 여성은 매니쉬·드라마틱한 의복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미(1999)의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중장년층일수록 무채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0대는 회색계



열을 40-50대는 흰색과 검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유채색의 경우는 20-30대는 파랑계열과 페일 색조를 40-50대는 빨강 및 주황계열과 비비드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같은 의복이라도 착용자의 연령에 따라 인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관찰자 집단에 따라서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판단함을 볼 수 있었다. 즉, 의복은 착용자에 대한 이미지 지각 시 비언어적 단서로 사용되며, 의복의 세부적 측면 및 착용자의 연령도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착용자에 대한 이미지 지각은 인상형성시 각기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로 지각한다는 형태주의적 접근과 타인에 대한 특정정보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인상이 형성되며 이것을 토대로 성격을 추리하여 성격의 지각이 일어난다는 내현성격이론 체계를 뒷받침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셔츠종류, 헤어스타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남성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의복이미지 지각 차원을 조사한다.
2. 자극물 제작방법(실물사진, 컴퓨터그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헤어스타일(짧은형, 중간형)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3.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의복색(베이지색, 남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4.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티셔츠, 와이셔츠)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5.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짧은형, 중간형)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6.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베이지색, 남색, 빨강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7.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여대생, 직장여성)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8.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9.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10. 옷차림에 따른 지각대상자의 연령 추론을 알아본다.

11. 옷차림에 따른 지각대상자의 직업 추론을 알아본다.

12.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을 조사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8가지 종류의 설계이며,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1)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캐주얼웨어를 착용한 20대 중반의 남성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의복유형, 의복색, 셔츠종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다.



실험 설계의 한계로 많은 수의 자극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복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여 8종류로 나누어 실험 조작하였다. 각 실험설계별 변인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설계의 변인 조작 내용

설계	의복 유형	기타 독립변인	자극물	헤어 스타일	의복색	셔츠종류	관찰자 직업	요인설계
			사진/ 그림	짧은형/ 중간형	베이지색/ 남색/ 빨강	티셔츠/ 와이셔츠	여대생/ 직장여성	
실험설계A	테일러드 재킷/ 점퍼		○	○				2×2×2
실험설계B			○		베이지색/ 남색			2×2×2
실험설계C			○			○		2×2×2
실험설계D	점퍼/ 스웨터		○	○				2×2×2
실험설계E			○		○			2×2×3
실험설계F			○				○	2×2×2
실험설계G				○	○			2×2×3
실험설계H					○		○	2×3×2

* 의복유형㉔ :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를 자극물 제작방법, 헤어스타일, 의복색, 셔츠종류 등으로 상호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설계 A : 2×2×2의 요인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헤어스타일(2)이며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이다. 즉 자극물 제작방법은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 의복유형은 테



일러드 재킷과 점퍼, 헤어스타일은 짧은형과 중간형이었다.

실험설계 B : 2×2×2의 요인설계로서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의복색(2)이며, 의복색은 베이지색과 남색이었다.

실험설계 C : 2×2×2의 요인설계로서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셔츠종류(2)이며, 셔츠종류는 티셔츠와 와이셔츠이었다.

*의복유형④ : 점퍼와 스웨터를 자극물 제작방법, 헤어스타일, 의복색, 직업 등으로 상호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설계 D : 2×2×2의 요인설계로서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헤어스타일(2)이며, 의복유형은 점퍼와 스웨터이었다.

실험설계 E : 2×2×3의 요인설계로서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의복색(3)이며, 의복색은 베이지색, 남색과 빨강이었다.

실험설계 F ; 2×2×2의 요인설계로서 자극물 제작방법(2), 의복유형(2), 직업(2)이며, 직업은 여대생과 직장여성이었다.

실험설계 G : 2×3×2의 요인설계로서 의복유형(2), 의복색(3), 헤어스타일(2)이었다.

실험설계 H : 2×3×2의 요인설계로서 의복유형(2), 의복색(3), 직업(2)이었다.

(2) 모델선정

자극물 속의 지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중 표



준체형범위의 체력조건을 가진 남성을 동일한 자세로 얼굴 중심의 인물사진(4×5cm의 크기)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사진 30장을 대학생 및 직장인 집단 20명에게 보여주고 그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를 다시 재평가시켜 3명으로 축소 선정하였다.

선정된 3명의 얼굴 사진을 판단집단에게 보여주고 각 모델의 표준형 얼굴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판단집단(의류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40명)에 의해 모델로 적합한 1명이 선정되었다.

(3) 의복유형과 의복색 선정

의복은 포멀웨어(formal wear)에 대비되는 캐주얼웨어(casual wear)로 정하였다. 캐주얼웨어는 포멀웨어와 달리 엄격한 원칙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색다른 연출법과 다양한 의상연출을 통하여 자기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박현 외(1998)와 심부자(1999)는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캐주얼웨어의 걸옷으로 테일러드 재킷, 점퍼 그리고 스웨터가 있으며 속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셔츠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남윤자, 이형숙, 1996 ; 권순애 외, 2000; 장애란 외, 2000; 이해영 외, 2000; 김은경 외, 2000; 신상옥 외, 1999; 타이콘 패션연구소, 1997)를 통해 상의는 테일러드 재킷, 점퍼, 스웨터 그리고 캐주얼 셔츠로, 하의는 청바지로 선정하였다.

실험설계의 한계로 많은 수의 자극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복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조작하였다.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 점퍼와 스웨터로 나누



어 실험하였는데, 이는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는 남성들이 외출할 때 착용빈도가 높은 겉옷이라는 점이었고, 점퍼와 스웨터는 남자대학생들 사이에서 착용빈도가 높다는 점이였다(이영재, 2001). 그러므로 각각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의복유형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테일러드 재킷의 스타일은 선행연구(유경숙, 1996)에서, 점퍼와 스웨터는 무늬와 배색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늬가 없는 단색을 사용하였으며, 스웨터는 브이넥 스타일을 사용하였다. 겉옷 속에는 흰색의 칼라가 달린 셔츠와 티셔츠를 착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복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테일러드 재킷 -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으로서 플랫포켓과 두 개의 싱글버튼이 있으며, 청바지 위에 착용할 수 있는 캐주얼한 스타일이다.

② 점퍼 - 수미엥(soutien)칼라와 소매 끝에 커프스가 있으며, 앞 중심을 지퍼로 여미는 짧은 재킷이다.

③ 스웨터 - 니트로 된 브이넥 스웨터로서 앞트임이 없다.

④ 와이셔츠 - 칼라(collar)와 앞 중심에 단추가 달린 캐주얼 셔츠이다.

⑤ 티셔츠 - 라운드 네크라인으로서 앞트임과 칼라가 없는 기본형 셔츠이다.

의복색상은 베이지(beige)와 네이비블루(navy blue)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 트레이셔널 캐주얼 브랜드에서 시즌에 관계없이 기본색과 기본 배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오현지, 2000), 남성들이 선호하고 소유도가 높은 색(김미영, 2002; 김영인 외, 2000)이라고 한 선행연구를 통해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의 의복색으로 선택 사용하였다. 또한 정포멀웨어보다 캐주얼웨어의 경우 채도가



높고 선명한 짙은 색상을 더 선호하며, 선호도가 다양하다고 한 선행연구(김영인 외, 2000)를 바탕으로 점퍼와 스웨터의 비교에서는 빨강색도 의복색으로 사용하였다. 빨강은 이미지 지각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남성들이 의복색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색이므로 선정하였다.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신발은 검정색 캐주얼 구두로 통제하였다.

(3) 자극물 제작방법

종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사진, 슬라이드, 실제모델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림(남미우, 1992; 이주현 외, 1995; 김재숙, 1991; 류지은, 2001)과 사진(이은미, 1992; 신소진, 1994; 이향미, 1995; 윤지성, 2001) 두 자극물이 이미지 지각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정교(2000)의 연구에서 그림은 실제 인물의 사진보다는 인위적이며 의복의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단점이 있으나 실제 인물에 대한 사진과 그림 자극물에 대한 효과가 피험자의 응답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재숙, 김희숙(2004)의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서도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극물 제작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미지 지각 연구에서는 실물이 가장 현실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착용자의 자세, 얼굴표정 등 통제의 어려움과 연구의 비경제성 등으로 인



해 연구의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미지 지각 연구에서는 제작된 자극물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미지 지각에 사용된 자극물은 실제인물의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하게 제작되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물사진과 그림자극물을 모두 이용해 자극물 제작방법에 의한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개의 자극물 중 사진자극물을 먼저 제작하였다. 사진자극물의 경우는 모델에게 셔츠 중 흰색의 티셔츠를 입힌 후 베이지색의 테일러드 재킷, 점퍼, 스웨터를 차례로 입혀 촬영 한 후 흰색의 와이셔츠로 갈아입혀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총 5종류의 사진을 현상하였다(스웨터는 와이셔츠 차림을 제외시켰다.). 모델은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20대 중반의 남자대학생으로 차렷 자세로 살짝 주먹을 쥐고 서 있는 모습으로서 지각대상자의 자세, 표정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사진은 전신 모습으로 12×18cm의 크기였다. 이 사진을 칼라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목적에 맞게 의복색과 헤어스타일을 조작하였다. 의복색은 남색과 빨강색으로, 헤어스타일은 짧은형과 중간형의 두가지 형태 조작하였다. 뒤 배경은 무채색으로 통제하였다.

그림자극물은 Adobe Illustrator 9.0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물사진과 같은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셔츠종류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의 얼굴 부분은 사진자극물에서 분리하여 합성하였는데, 이는 그림으로 단순화된 얼굴에 의해 이미지 지각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조작하여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사진자극물 24가지,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된 그림자극물 24가지로 총 48가지였다. 자극물은 5×16cm의 전신 크기로 칼라 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사용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의 모습은 부록 <그림 26 - 그림 31>과 같다. <그림 26, 27, 28>은 실물 사진자극물이다.

<그림 26>은 티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다. 자극물 1은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4YR 8.5/2.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2는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3은 남색 테일러드 재킷(2PB 3.0/6.0)에 짧은 헤어스타일, 자극물 4는 남색 테일러드 재킷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자극물 5는 베이지색 점퍼(4YR 8.5/2.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6은 베이지색 점퍼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7은 남색 점퍼(2PB 3.0/6.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8은 남색 점퍼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27>는 칼라가 있는 캐주얼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다. 자극물 9는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4YR 8.5/2.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0은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1은 남색 테일러드 재킷(2PB 3.0/6.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2는 남색 테일러드 재킷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자극물 13은 베이지색 점퍼(4YR 8.5/2.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4는 베이지색 점퍼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5는 남색 점퍼(2PB 3.0/6.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6은 남색 점퍼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28>은 티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다. 자극물 17은 빨강 점퍼(2R 4.0/14)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8은 빨강 점퍼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19는 베이지색 스웨터(4YR 8.5/2.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20은



베이지색 스웨터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자극물 21은 남색 스웨터(2PB 3.0/6.0)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22는 남색 스웨터에 중간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23은 빨강 스웨터(2R 4.0/14)에 짧은형 헤어스타일, 자극물 24는 빨강 스웨터에 중간형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29, 30, 31>은 컴퓨터로 제작 후 출력된 그림자극물로서 <그림 26, 27, 28>과 동일한 의복디자인 및 헤어스타일이다.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 쌍 선정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응답자의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96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의복과 헤어스타일이 각각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강혜원, 이주현, 1990; 강혜원, 고애란, 1991; 이명희, 강승희, 1998; 주소현, 이경희, 1999)에서 적절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총 24개의 형용사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좋아하지 않은” 문항을 한 개 더 포함시켜 총 25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과 직장여성이었다. 여대생은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 배화여자대학에서, 직장여성은 은행원, 회사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교사 및 강사 등 이었다(부록 표 1 참조). 한 개의 자극물에 여대생과 직장여성이 각각 12명 이상 반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8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는 전체 조사대상자는 여대생 360명과 직장여성 266명으로 전체 626명 이었다. 1명의 조사대상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을 보고 각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3월~4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Varimax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출,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사후검증, χ^2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4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2>와 같다.

요인 1은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점잖은 - 점잖지 않은,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예의 바른 - 예의 없는 등이 포함되어 단정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4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여기에 속하였다. 요인 2는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 않은, 유능한 - 무능한, 품위 있는 - 품위없는, 노련한 - 미숙한 등이 포함되어 능력 요인이라 칭하였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7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요인 3는 캐주얼한 - 포말한,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편안한 - 답답한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51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요인 4은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무난하지 않은 - 무난한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3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여기에 속하였다. 요인 5는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적극적 - 소극적 등이 포함



<표 2>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요인 1. 단정성		요인부하량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81
점잖은	- 점잖지 않은	.78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70
예의 바른	- 예의 없는	.68
차분한	- 요란한	.65
신중한	- 경솔한	.54
전체변량(%) = 17.08% 누적변량 = 17.08%		
고유치 = 4.10 α신뢰도 = .83		
요인 2. 능력		요인부하량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 않은	.71
유능한	- 무능한	.70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64
노련한	- 미숙한	.63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59
세련된	- 촌스러운	.57
전체변량(%) = 13.91% 누적변량 = 30.99%		
고유치 = 3.34 α신뢰도 = .81		
요인 3. 활동성		요인부하량
캐주얼한	- 포말한	.75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68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63
답답한	- 편안한(R)	-.52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51
전체변량(%) = 12.69% 누적변량 = 43.68%		
고유치 = 3.05 α신뢰도 = .74		
요인 4. 개성		요인부하량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73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69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67
무난한	- 무난하지 않은(R)	-.56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43
전체변량(%) = 10.47% 누적변량 = 54.15%		
고유치 = 2.51 α신뢰도 = .73		
요인5. 사교성		요인부하량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78
적극적	- 소극적	.68
전체변량(%) = 7.02% 누적변량 = 61.17%		
고유치 = 1.69 α신뢰도 = .66		

R : 반대로 해석하는 문항



되어 사교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68 이상이고 모두 2문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3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누적 변량은 61.17%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단정성,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이 각각 .83, .81, .74, .73, .66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의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활동성 요인의 '답답한 - 편안한', 개성 요인의 '무난한 - 무난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주효과를 보면 자극물 제작방법은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능력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극물 제작방법의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사진자극물이 더 활동



적이고 개성적이며 사교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김재숙, 김희숙(2004)

<표 3> 자극물 제작 방법, 의복유형㉔,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29	.17	6.34*	17.11***	12.20***	
의복유형(B)	1	.56	13.98***	18.31***	22.38***	6.25*	
헤어스타일(C)	1	3.70	.02	.34	1.24	.69	
A×B	1	4.18*	27.43***	5.52*	23.06***	17.91***	
A×C	1	.02	4.89*	1.97	.96	4.45*	
B×C	1	3.47	.61	.22	.00	.78	
A×B×C	1	1.09	.23	.86	.13	.56	
집단 내 오차	746						
변인	속성	N	M	M	M	M	
자극물	사진	449	4.76	3.67	4.47	3.14	4.15
제작방법	그림	305	4.79	3.59	4.30	2.81	3.82
의복	재킷	361	4.73	3.74	4.22	3.16	4.11
유형	점퍼	393	4.81	3.55	4.56	2.87	3.94
헤어	짧은형	377	4.70	3.67	4.43	3.05	4.07
스타일	중간형	377	4.84	3.62	4.40	2.97	3.97

* $p < .05$, ** $p < .01$, *** $p < .001$

의 연구에서 사교성 요인은 실물과 실물사진이 가장 사교적으로, 칼라그림은 비사교적으로 평가되었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의복유형은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킷이 점퍼보다 능력, 개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가 재킷보다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퍼는 활동성이 강조된 의복으로 사람의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의복이므로 테일러드 재킷보다 더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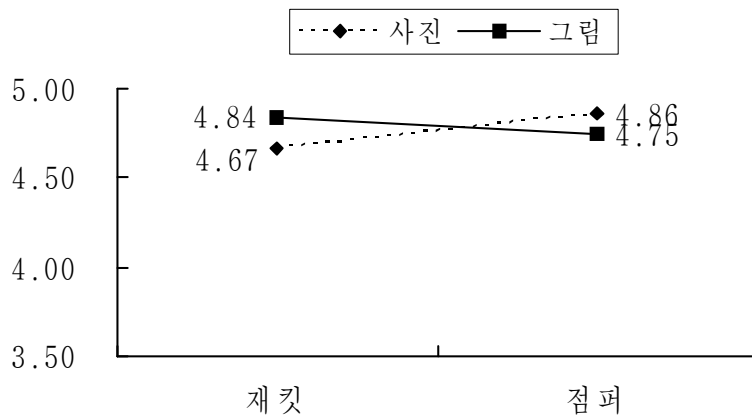
동성이 높게 지각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드 재킷에 청바지 차림은 슈트보다 인포멀한 의복이지만 수트차림의 연장으로 보아 점퍼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인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바지에 테일러드 재킷 착용이 청바지에 점퍼 착용보다 개성적으로 보여 진 것은 청바지에 점퍼 착용이 일반적인 캐주얼 의복 착용 방법이라는 견해를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는 송선옥, 이인자(2001)는 의복유형, 얼굴형과 체형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복유형은 멋스러운, 활동성, 강인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활동성 차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단정성 요인의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사진자극물은 청바지에 점퍼를 착용한 경우 테일러드 재킷을 착용했을 때보다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그림자극물은 테일러드 재킷을 착용했을 때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이 독립적 단서로 제시된 경우 단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지 못 하였으나 각각의 정보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단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서로 변화됨으로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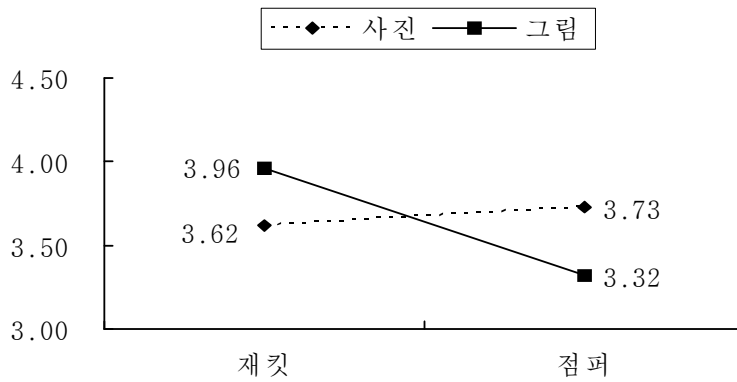


<그림 1> 단정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㉞)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사진자극물은 의복유형에 따른 능력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은 능력 평가의 차이가 테일러드 재킷보다 점퍼가 능력이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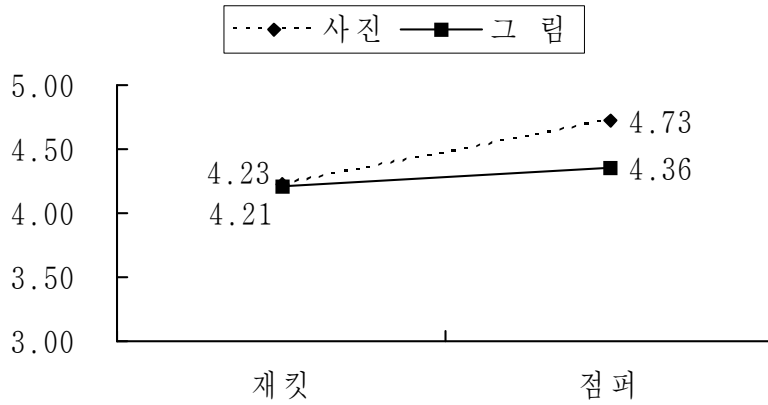
의복유형은 재킷이 점퍼보다 능력적으로 인식되어 능력 요인에 영향을 주는 단서였으나, 자극물 제작방법은 능력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서였다. 그러나 이 두 단서가 상호작용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에서 능력평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 자극물의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⑦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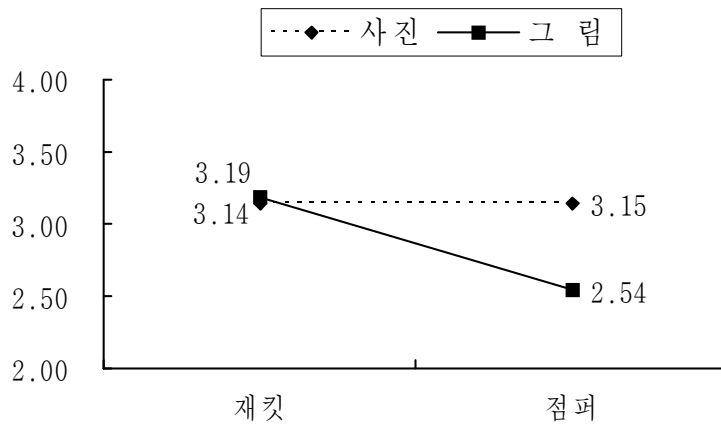
활동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그림자극물은 의복유형에 따른 활동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사진자극물은 활동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 점퍼가 테일러드 재킷보다 더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3> 활동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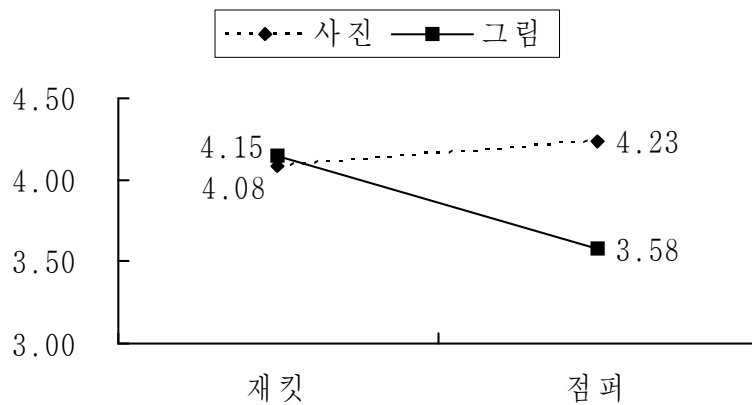
<그림 4>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4>에서 보면 사진자극물은 의복유형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은 개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점퍼가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보면 사진자극물은 의복유형에 따른 사교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의 경우 사교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점퍼 착용이 사교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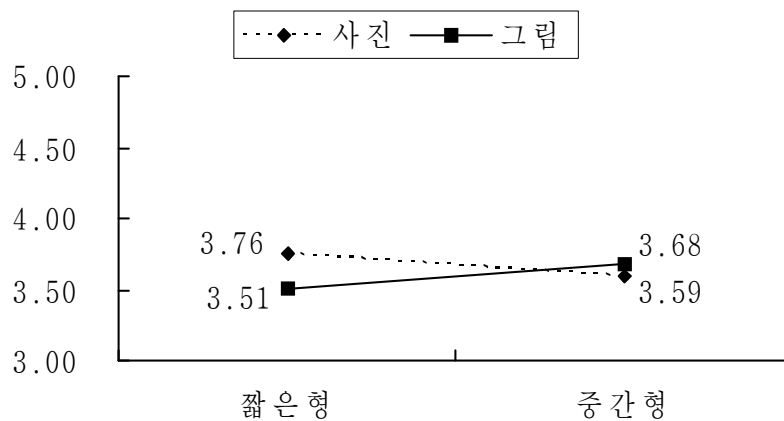
<그림 5> 사교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의 상호작용효과에 있어 사진자극물은 활동성 요인을 제외하고 의복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의 경우 단정성, 능력,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 테일러드 재킷 착용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김재숙, 김희숙(2004)의 자극물 표현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의 연구에서 자극물 표현방법에 따라서도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자극물의 제작방법에 의하여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극물을 제작할 때 제작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능력과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있었으며 능력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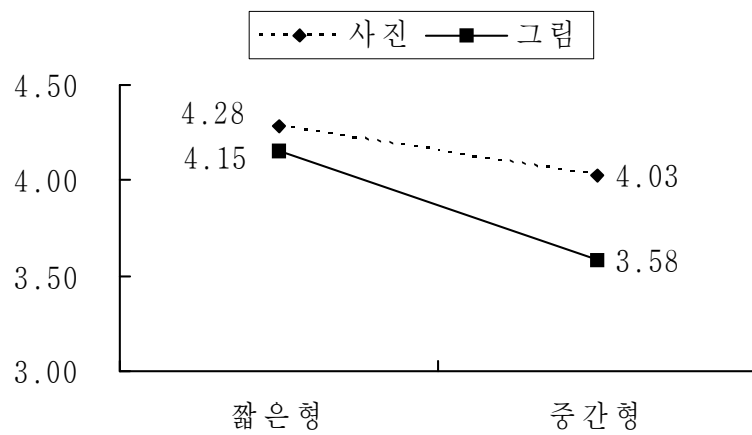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볼 때 사진자극물인 경우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중간형의 헤어스타일보다 능력 있게 평가되었고, 그림자극물인 경우는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평가되어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차이가 지각되었다.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사진자극물은 헤어스타일에 따른 사교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은 사교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중간형보다 더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에 있어서 능력 요인과 사교성 요인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헤어스타일도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7> 사교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22	.30	6.28*	16.02***	11.69***
의복유형(B)		1	.60	17.87***	17.41***	22.97***	6.43*
의복색(C)		1	.25	1.02	.15	.72	.94
A×B		1	3.87*	25.83***	5.88*	24.01***	18.08***
A×C		1	.38	.49	.36	5.31*	.01
B×C		1	.52	.04	3.91*	.02	.05
A×B×C		1	3.76	.02	.80	1.89	.43
집단 내 오차		746					
변인	속성	N	M	M	M	M	M
자극물 제작방법	사진	449	4.76	3.17	4.47	3.14	4.15
	그림	305	4.79	3.16	4.30	2.81	3.82
의복 유형	재킷	361	4.73	3.26	4.22	3.16	4.11
	점퍼	393	4.81	3.07	4.56	2.87	3.94
의복색	베이지색	364	4.76	3.13	4.41	3.02	4.06
	남색	390	4.78	3.20	4.38	3.00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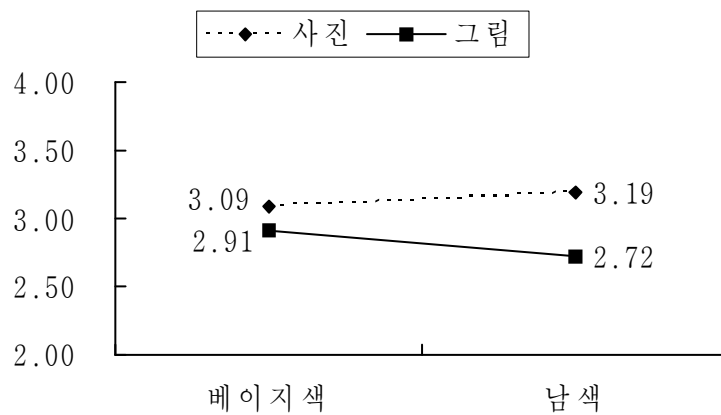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 볼 때 의복색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개성 평가에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베이지색은 자극물에 따른 개성평가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남색은 차이가 있어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남색이 더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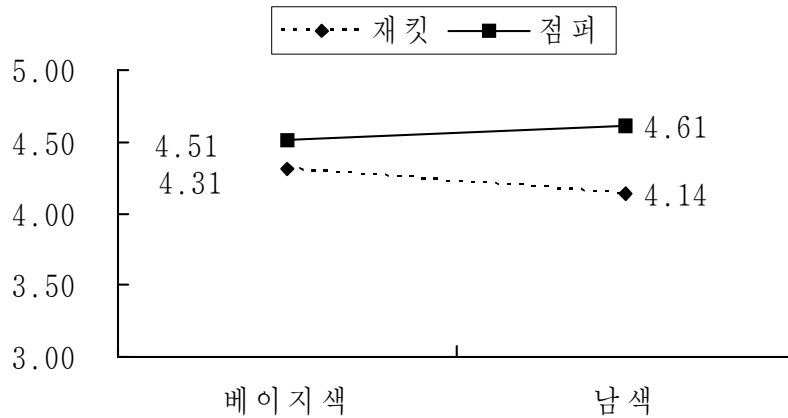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7>, <그림 8> 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진보다 그림은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사진이 그림보다 헤어스타일이나 의복형태, 의복색 등을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8>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활동성 요인은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활동성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와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9>에서 보면 테일러드 재킷은 베이지색일 때, 점퍼는 남색일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베이지색은 의복유형에 따른 차이가 낮았으나 남색은 의복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색 테일러드 재킷은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남색이 일반적인 남성의 정장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성이 낮게 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복유형에 따른 활동성 지각은 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01	.24	7.41***	15.85***	10.67***
의복유형(B)		1	.03	21.08***	17.06***	24.19***	5.86*
셔츠종류(C)		1	.03	.39	10.39***	2.69	.43
A×B		1	6.18*	29.72***	7.29***	25.41***	18.71***
A×C		1	18.76***	1.20	1.66	9.37***	13.34***
B×C		1	1.38	5.31*	.50	9.34***	.26
A×B×C		1	11.42***	9.64***	2.16	3.68	1.09
집단 내 오차		746					
변인	속성	N	M	M	M	M	M
자극물	사진	449	4.76	3.17	4.47	3.14	4.15
제작방법	그림	305	4.79	3.16	4.30	2.81	3.82
의복	재킷	361	4.73	3.26	4.22	3.16	4.11
유형	점퍼	393	4.81	3.07	4.56	2.87	3.94
셔츠	티셔츠	404	4.75	3.15	4.51	2.96	4.05
종류	와이셔츠	350	4.80	3.18	4.26	3.06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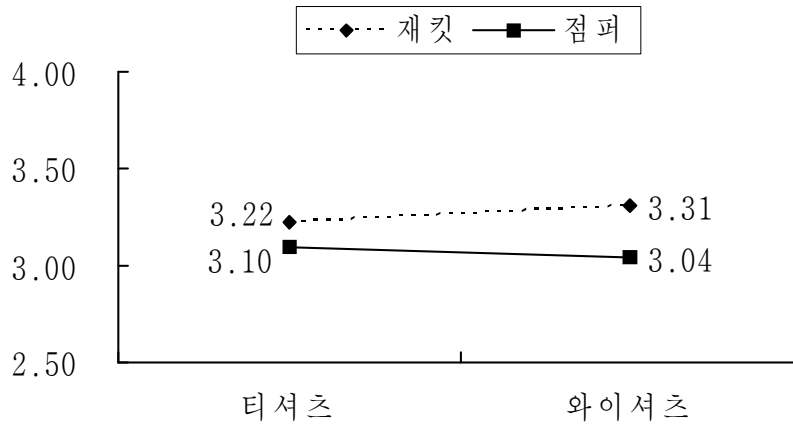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 주효과를 보면 셔츠종류는 활동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변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셔츠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티셔츠가 와이셔츠보다 활동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티셔츠와 와이셔츠가 가지고 있는 의복의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티셔츠는 단추를 채우거나 여미지 않아 입고 벗기가 편리하다는 기능적인 특징과 소재면에서도 니트 소재로 와이셔츠보다 구김이 덜 가고 다림질 등이 필요 없는 실용적인 면이 높으므로 티셔츠가 활동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이지현(1993)의 칼라(collar)에 대한 인상 평가 연구에서 라운드형의 네크라인이 활동적으로 평가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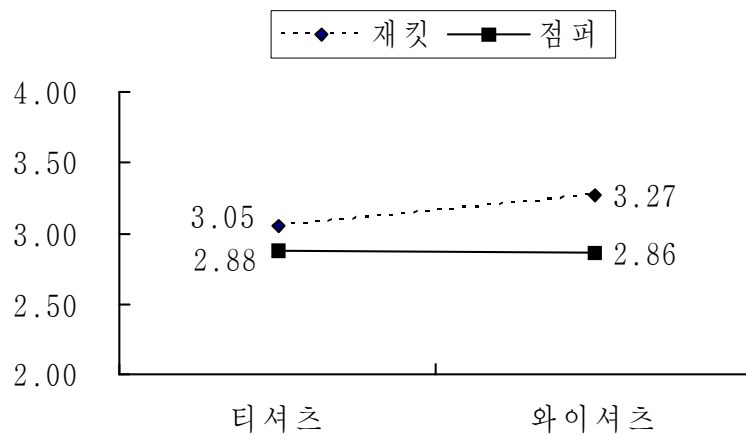
능력 요인은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테일러드 재킷은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티셔츠를 착용했을 때보다 좀 더 능력 있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속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 와이셔츠를 착용했을 때보다 좀 더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이는 테일러드 재킷인 경우 수트와 드레스셔츠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드레스셔츠와 좀 더 유사한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능력 있게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점퍼는 테일러드 재킷보다 활동적인 의복이므로 점퍼 속에 착용하는 셔츠도 좀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야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테일러드 재킷에 버튼다운 칼라셔츠는 점퍼에 버튼다운 칼라셔츠보다 지적으로 인식된 이지현(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림 10> 능력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와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개성 요인은 의복유형(테일러드 재킷, 점퍼)과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개성 요인에 대한 의복유형(㉠)와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1>에서 보면 점퍼는 셔츠종류에 다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재킷은 셔츠종류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 재킷 속에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 개성이 더 낮게 지각되었다.

<표 5>에서 보면 단정성, 능력 요인에서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상호작용형태는 <표 6> 및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표 6> 단정성,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셔츠종류에 따른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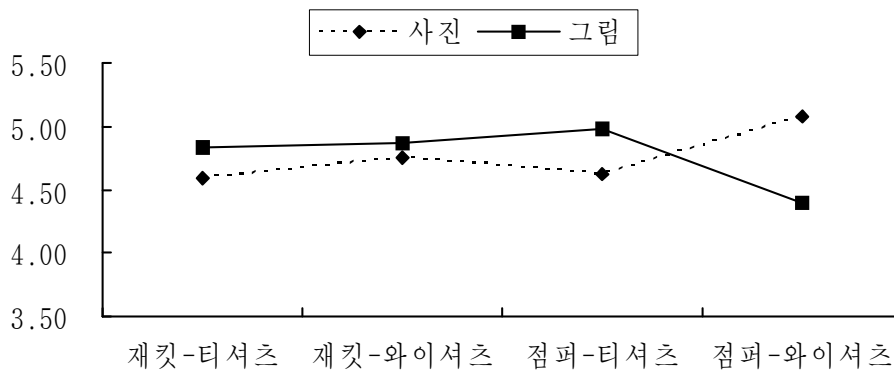
요인	자극물	유형 셔츠	테일러드 재킷		점퍼	
			티셔츠	와이셔츠	티셔츠	와이셔츠
		단정성	사진	4.59	4.75	4.62
	그림	4.83	4.86	4.98	4.39	
능력	사진	3.18	3.10	3.18	3.20	
	그림	3.28	3.71	3.01	2.78	

<그림 12>에서 단정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의복유형 전반에 걸쳐 그림 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더 단정하게 평가되었으나, 점퍼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에 있어서는 사진자극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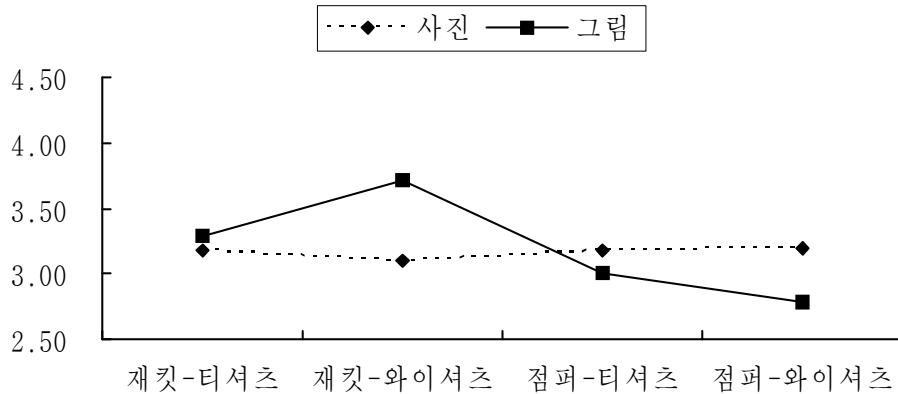
<그림 13>에서 능력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진자극물인 경우 의복유형과 셔츠종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극물인 경우 테일러드 재킷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고, 점퍼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를 가장 능력 없게 평가되었다.



그림자극물인 경우 속에 입은 셔츠종류에 따라 자극물의 지각에 영향을 받으며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이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속에 입은 셔츠가 그림인 경우 사진보다 더욱 뚜렷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재킷에 티셔츠를 입은 것보다 재킷에 와이셔츠를 입은 모습을 더 능력있게 지각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림 12> 단정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㉔),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3>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㉔), 셔츠종류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 자극물 제작 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주효과를 보면 헤어스타일은 단정성, 개성, 사교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변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헤어스타일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짧은형의 헤어스타일보다 단정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는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중간형의 헤어스타일보다 더 개성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를 연구한 김재숙, 류지원(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짧은 머리가 가장 사교적이며, 약간 긴머리가 가장 평가적인 이미지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성의 짧은 머리는 개성적 이미지에, 중간 길이의 머리는 세련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 도주연(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표 7> 자극물 제작 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4.10*	8.55**	18.16***	12.11***	47.51***	
의복유형(B)	1	1.00	4.83*	6.60**	.05	9.55**	
헤어스타일(C)	1	6.43*	.38	.69	4.41*	5.49*	
A×B	1	.71	2.09	.54	11.86***	.59	
A×C	1	.06	4.69*	.54	1.35	1.87	
B×C	1	.00	.73	.40	.26	2.47	
A×B×C	1	3.35	1.41	4.65*	4.49*	.54	
집단 내 오차	703						
변인	속성	N	M	M	M	M	
자극물	사진	319	4.57	3.25	4.90	3.32	4.57
제작방법	그림	392	4.71	3.10	4.62	3.07	3.99
의복	점퍼	328	4.61	3.10	4.66	3.19	4.13
유형	스웨터	383	4.68	3.22	4.81	3.18	4.36
헤어	짧은형	361	4.56	3.14	4.77	3.27	4.35
스타일	중간형	350	4.74	3.19	4.72	3.10	4.1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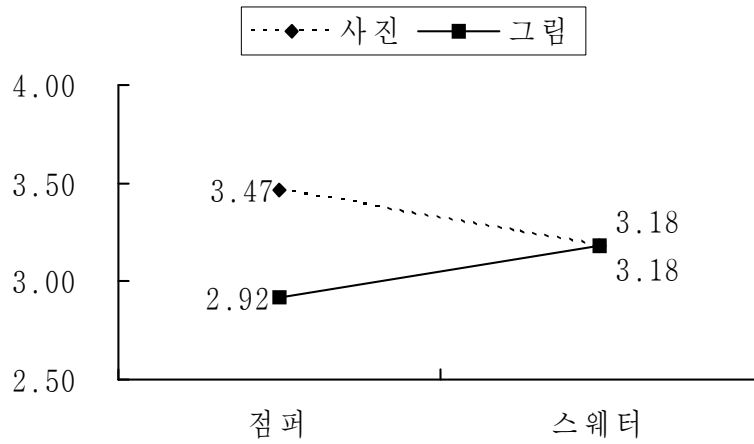


의복유형(점퍼, 스웨터)은 능력, 활동성, 사교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개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3요인 모두에서 스웨터 착용이 점퍼 착용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황미선(2004)이 연구에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착용하는 것이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였고, 송선옥, 이인자(2001)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자극물 제작방법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극물 제작방법의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4요인에서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단정성 요인에서만 그림자극물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의복을 그림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여 사진이에 비해 단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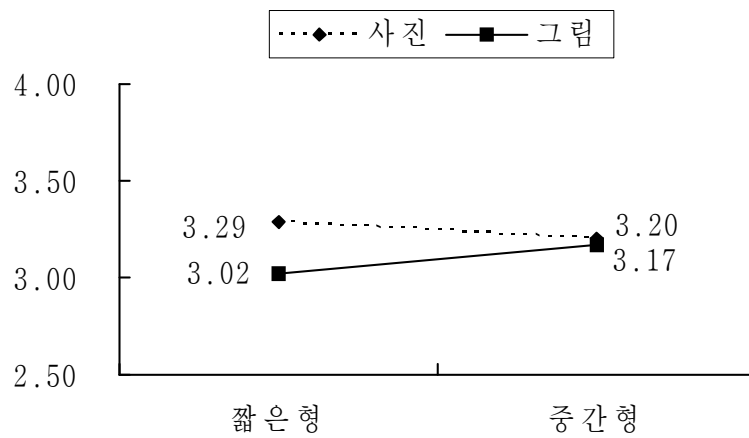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점퍼, 스웨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에서 스웨터 차림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없었으나 점퍼 차림은 차이가 있어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개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14>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 ㉔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능력 평가는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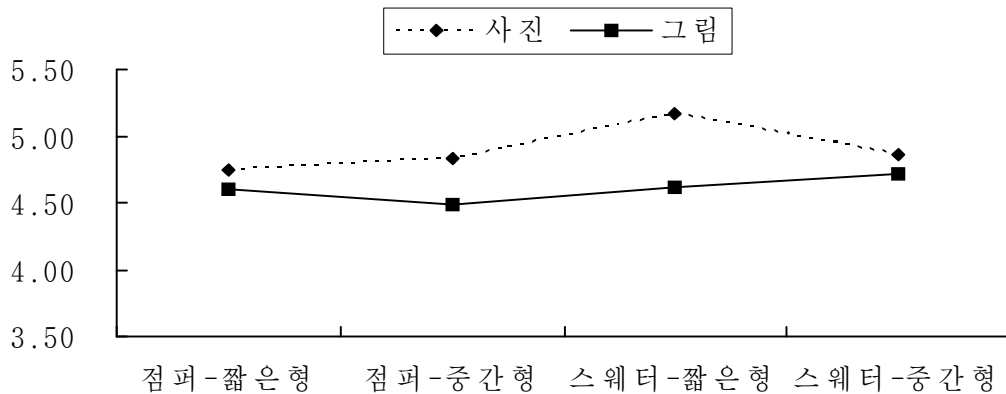


<그림 15>에서 볼 때 사진자극물인 경우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중간형의 헤어스타일보다 능력 있게 지각되었고, 그림자극물인 경우는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표 7>에서 보면 활동성, 개성 요인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각 요인에 대한 3개의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형태는 <표 8>, <그림 16>, <그림 17>과 같다.

<표 8> 활동성,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요인	자극물	유형 헤어		스웨터	
		짧은형	중간형	짧은형	중간형
활동성	사진	4.74	4.83	5.16	4.86
	그림	4.60	4.49	4.62	4.72
개성	사진	3.66	3.28	3.25	3.12
	그림	2.86	2.99	3.32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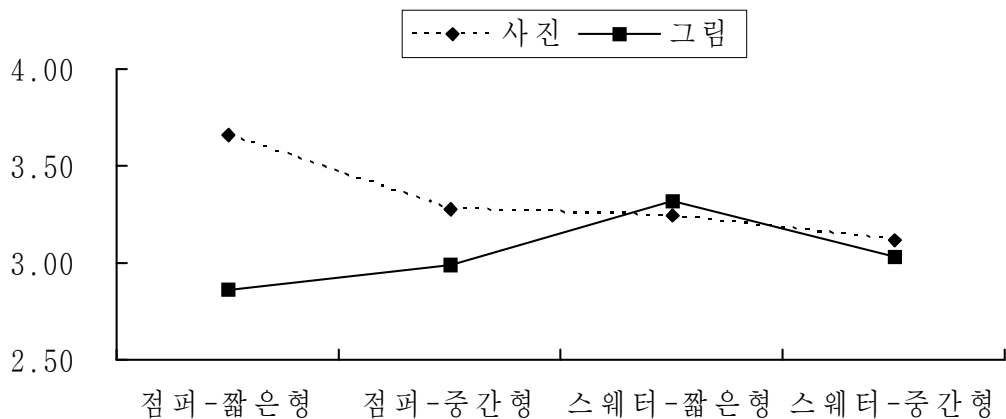


<그림 16> 활동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6>에서 볼 때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을 그림자극물로 제시한 경우 활동성 요인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자극물은 스웨터를 착용하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점퍼 차림에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17>에서 개성 요인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사진자극물인 경우 스웨터 차림이 개성적이지 못하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스웨터를 착용하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 개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그림자극물인 경우는 점퍼를 입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 한 경우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그림 17>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6.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5.26*	8.61**	19.48***	15.95***	52.39***
의복유형(B)		1	.88	4.99*	7.10**	.00	11.31***
의복색(C)		2	31.07***	2.32	.58	55.97***	11.95***
A×B		1	.93	2.04	.49	14.25***	.48
A×C		2	7.76***	.51	1.76	5.52**	2.89
B×C		2	.31	.61	2.74	.56	.36
A×B×C		2	2.87	2.19	2.29	1.10	5.86**
집단 내 오차		699					
변인	속성	N	M	M	M	M	M
자극물	사진	319	4.57	3.25	4.90	3.32	4.57
제작방법	그림	392	4.71	3.10	4.62	3.07	3.99
의복	점퍼	328	4.61	3.10	4.66	3.19	4.13
유형	스웨터	383	4.68	3.22	4.81	3.18	4.36
의복색	베이지색	230	4.78	3.10	4.70	2.94	4.14
	남색	237	4.91	3.25	4.75	2.86	4.08
	빨강	244	4.27	3.14	4.78	3.73	4.5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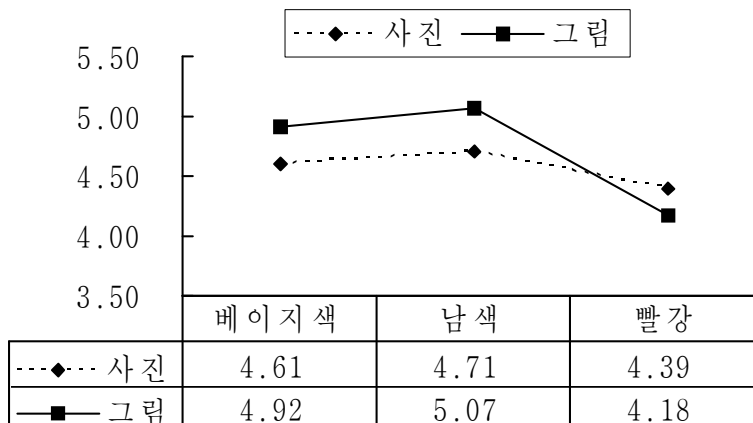
<표 9>에서 주효과를 보면 의복색은 단정성,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복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남색은 단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빨강



은 단정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이명희, 홍선옥(2004)의 연구에서 흰색, 검정, 남색이 단정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성 요인과 사교성 요인에서는 빨강이 가장 개성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남색은 사교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이향미,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 사교적 차원에서 적별돌색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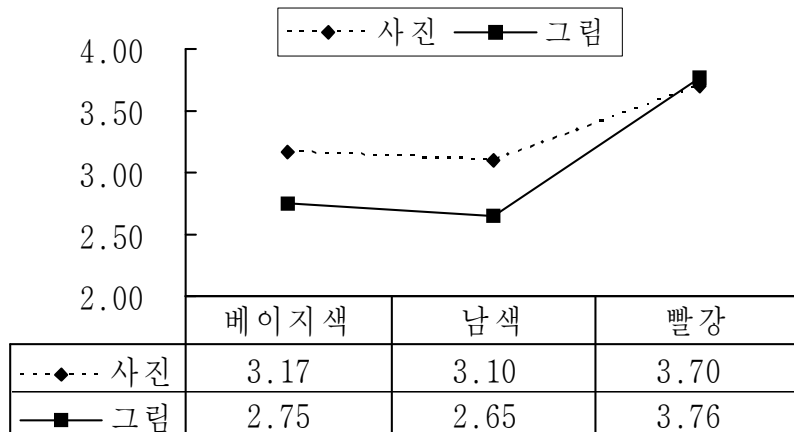
단정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에서 볼 때 빨강은 그림보다 사진 자극물의 경우 더 단정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베이지색과 남색은 사진보다 그림 자극물에서 단정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그림 18> 단정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9>에서 볼 때 베이지색과 남색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개성 평가에서 그림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베이지색과 남색이 더 개성적이지 않게 평가되었다. 단정성 및 개성 요인에서 그림이 사진보다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림의 색이 사진의 색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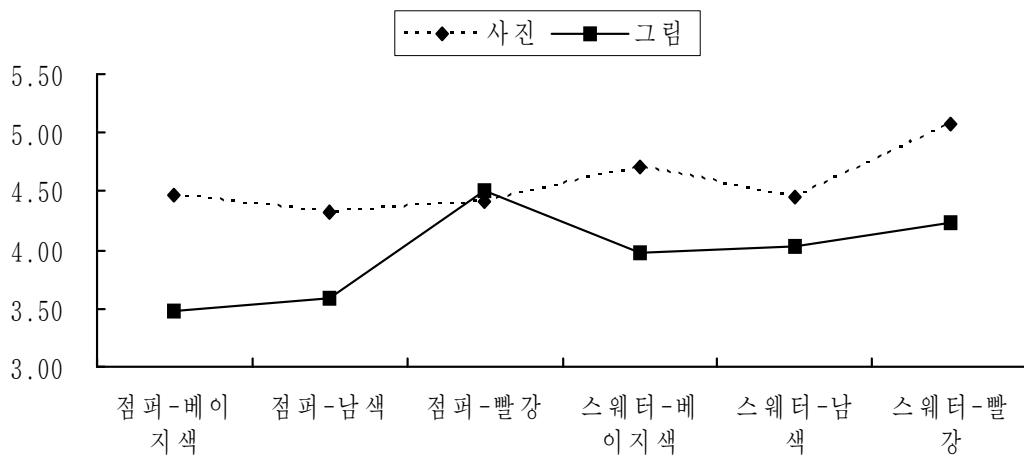
<표 9>에서 보면 사교성 요인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형태는 <표 10>,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에서 사진자극물은 빨강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가장 사교적이라고 지각되었고, 남색 점퍼를 착용했을 때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림자극물에서는 빨강 점퍼를 사교적이라고 지각하였고, 베이지색의 점퍼는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10>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의복색에 따른 평균치

요인	유형 의복색 자극물	점퍼			스웨터		
		베이지색	남색	빨강	베이지색	남색	빨강
		사교성	사진 4.47	그림 4.32	4.42	4.71	4.45
		3.48	3.58	4.50	3.97	4.03	4.23



<그림 20>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3.28	8.19**	15.89***	10.34***	45.79***
의복유형-(B)		1	.80	4.75*	7.22**	.00	10.47***
직업(C)		1	2.17	5.46*	7.56**	8.06**	.00
A×B		1	1.09	2.19	.32	13.72***	.42
A×C		1	1.68	1.32	.07	8.30**	2.86
B×C		1	.89	1.06	.33	.00	.72
A×B×C		1	.44	3.26	.18	.26	.15
집단 내 오차		699					
변인	속성	N	M	M	M	M	M
자극물 제작방법	사진	319	4.57	3.25	4.90	3.32	4.57
	그림	392	4.71	3.10	4.62	3.07	3.99
의복 유형	점퍼	328	4.61	3.10	4.66	3.19	4.13
	스웨터	383	4.68	3.22	4.81	3.18	4.36
직업	여대생	366	4.71	3.10	4.64	3.06	4.22
	직장여성	345	4.58	3.23	4.85	3.31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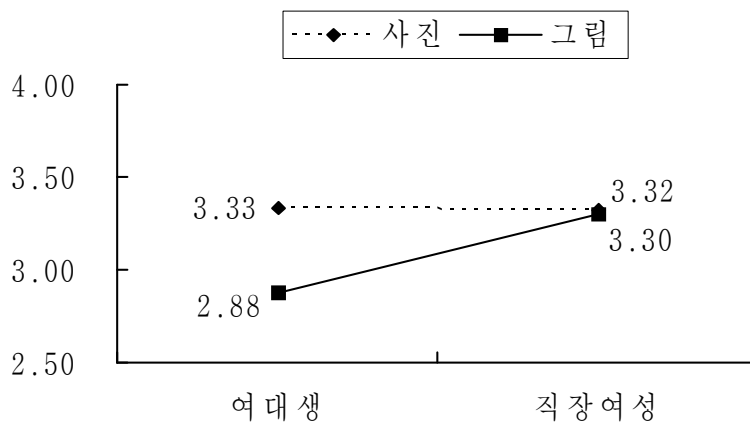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에서 주효과를 보면 직업은 능력, 활동성, 개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변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직장여성이 여대생에 비해 자극물을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개성있게 평가하였다.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에서 보면 사진자극물은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개성 평가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자극물의 경우 여대생이 자극물을 개성이 낮게 지각하였다. 즉 여대생은 같은 얼굴의 자극물을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달리 평가하였으며 자극물 제작방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8.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의복유형(A)	1	.93	4.76*	4.92*	.01	6.99**	
의복색(B)	2	34.54***	2.56	.57	58.07***	10.67***	
헤어스타일(C)	1	8.06**	.86	.37	5.10*	4.39*	
A×B	2	.22	.48	2.32	.23	.47	
A×C	1	.04	.35	.14	.44	2.06	
B×C	2	1.36	.14	.10	1.21	.11	
A×B×C	2	3.42*	1.64	1.75	1.57	.61	
집단 내 오차	699						
변인	속성	N	M	M	M	M	M
의복 유형	점퍼	328	4.61	3.10	4.66	3.19	4.13
	스웨터	383	4.68	3.22	4.81	3.18	4.36
의복색	베이지색	230	4.78	3.10	4.70	2.94	4.14
	남색	237	4.91	3.25	4.75	2.86	4.08
	빨강	244	4.27	3.14	4.78	3.73	4.52
헤어 스타일	짧은형	361	4.56	3.14	4.77	3.27	4.35
	중간형	350	4.74	3.19	4.72	3.10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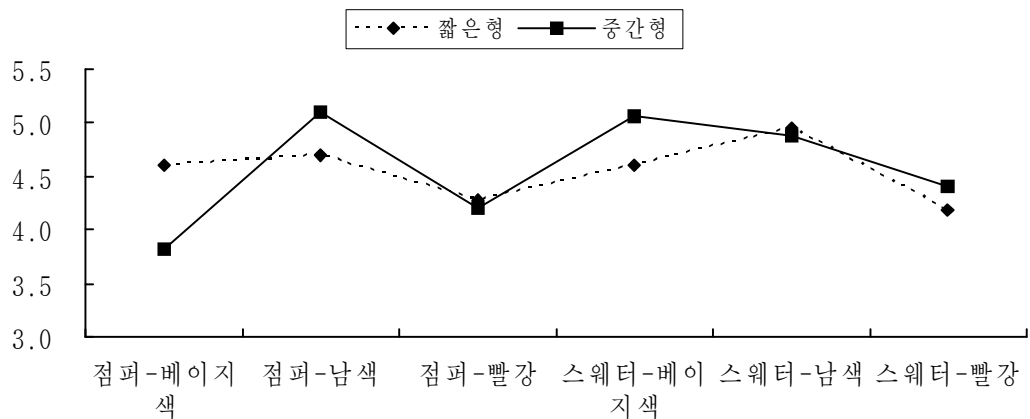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12>에서 면 의복유형④,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이는 단정성 요인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상호작용형태는 <표 12>, <그림 28>과 같다.

<표 13>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요인	유형	점퍼			스웨터		
		의복색	베이스색	남색	빨강	베이스색	남색
	헤어						
단정성	짧은형	4.61	4.70	4.28	4.61	4.95	4.19
	중간형	3.82	5.10	4.21	5.07	4.88	4.40



<그림 22>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④,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은 남색 스웨터를 입은 경우 단정하게 지각되었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은 남색 점퍼와 베이지색 점퍼를 를 착용했을 때 단정하게 평가되었다.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하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단정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9.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볼 때 단정성 요인은 의복색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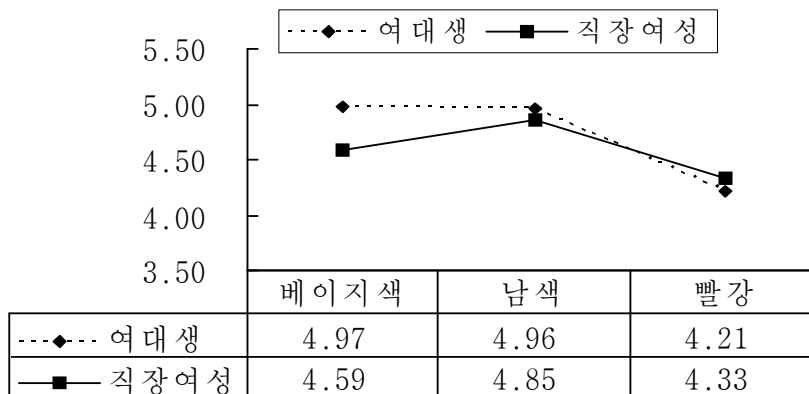
<그림 23>에서 남색과 빨강은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단정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베이지색은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단정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직장여성에 비해 베이지색을 더 단정하게 평가하였다.



<표 14>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의복유형(A)	1	.79	5.24*	5.58*	.04	7.20**	
의복색(B)	2	34.35***	2.70	.56	57.53***	10.49***	
직업(C)	1	3.19	6.58*	10.14**	11.30***	.51	
A×B	2	.23	.43	2.41	.25	.53	
A×C	1	1.38	1.41	.71	.03	2.28	
B×C	2	5.16**	.28	.76	3.24*	1.05	
A×B×C	2	3.66*	1.18	1.33	1.60	.39	
집단 내 오차	699						
변인	속성	N	M	M	M	M	M
의복 유형	점퍼	328	4.61	3.10	4.66	3.19	4.13
	스웨터	383	4.68	3.22	4.81	3.18	4.36
의복색	베이지색	230	4.78	3.10	4.70	2.94	4.14
	남색	237	4.91	3.25	4.75	2.86	4.08
	빨강	244	4.27	3.14	4.78	3.73	4.52
직업	여대생	366	4.71	3.10	4.64	3.06	4.22
	직장여성	345	4.58	3.23	4.85	3.31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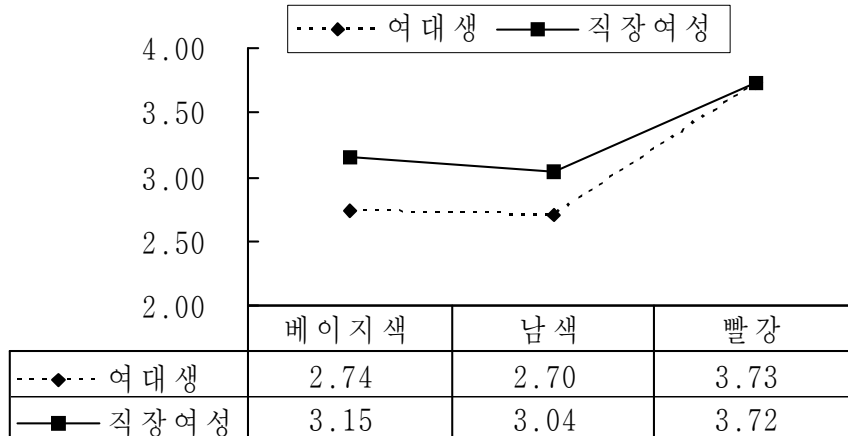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3>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직업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 14>에서 개성 요인은 의복색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개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직업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24>에서 보면 빨강은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개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베이지색과 남색은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개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직장여성에 비해 베이지색을 더 개성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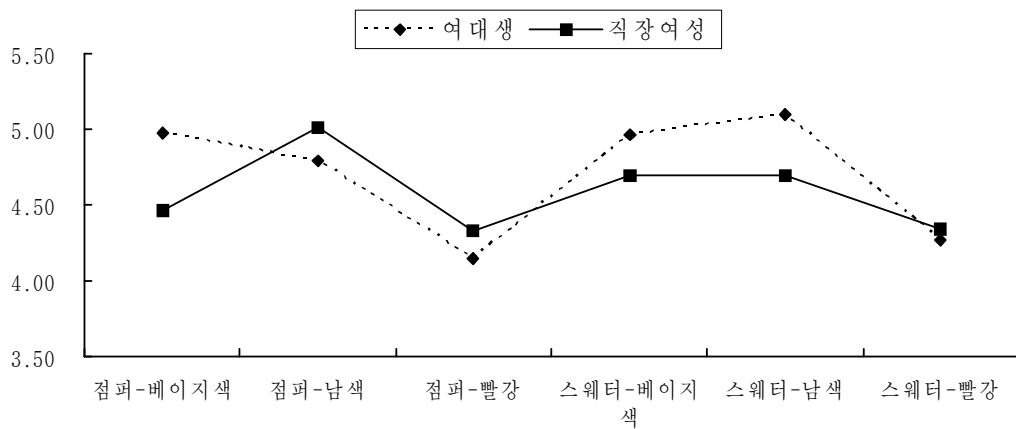
<표 14>에서 보면 단정성 평가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형태는 <표 15>,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에서 여대생들은 남색 스웨터 착용을 가장 단정하다고 평가하였고, 빨강 점퍼 착용을 단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직장여성들은 남색 점퍼 차림을 가장 단정하다고 지각하였으며, 빨강 점퍼차림을 단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15>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④,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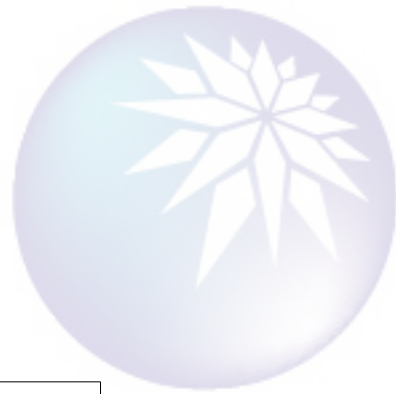
요인	직업	의복색		의복유형			
		점퍼			스웨터		
		베이지색	남색	빨강	베이지색	남색	빨강
단정성	여대생	4.98	4.79	4.15	4.96	5.10	4.27
	직장여성	4.46	5.01	4.33	4.70	4.70	4.34



<그림 25>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④,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 형태

이상의 결과에서 이미지 지각을 위한 독립적 단서들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각각의 정보들이 조직화되어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로 지각된다는 형태주의적 이론을 뒷받침한다.

연구결과의 내용을 주효과의 유의한 결과, 상호작용효과의 유의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로 나누어 <표 16 - 표18>에 제시하였다.



<표 16> 주효과의 유의한 결과

요인	의복 유형	독립변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셔츠종류	헤어 스타일	관찰자 직업
단정성	㉠						
	㉡	*		***		*	
능력	㉠		***				
	㉡	**	*				*
활동성	㉠	*	***		***		
	㉡	***	**				**
개성	㉠	***	***				
	㉡	***		***		*	**
사교성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17> 상호작용효과의 유의한 결과

요인	의복 유형	자극물	
		이원상호작용	삼원상호작용
단정성	㉠	A×B, A×E	A×B×E
	㉡	A×D, D×G	A×C×D, A×D×G
능력	㉠	A×B, A×C, B×E	A×B×E
	㉡		
활동성	㉠	A×B, B×D	
	㉡		A×C×F
개성	㉠	A×B, A×D, A×E, B×E	
	㉡	A×F, A×D, A×G, D×G	A×C×F
사교성	㉠	A×B, A×C, A×E	
	㉡		A×D×F

A: 자극물제작방법, B: 의복유형㉠, C: 헤어스타일, D: 의복색,
E: 셔츠종류, F: 의복유형㉡, G: 지각자의 직업



<표 18>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요인	의복 유형	자극물	
		실물 사진	컴퓨터 그림
단정성	㉠	점퍼, 점퍼-칼라셔츠	캐주얼 재킷, 점퍼-티셔츠
	㉡		남색
능력	㉠	짧은형 헤어스타일	캐주얼 재킷, 재킷-칼라셔츠 중간형 헤어스타일
	㉡	짧은형 헤어스타일	중간형 헤어스타일
활동성	㉠	점퍼, 스웨터-짧은형 헤어스타일	
	㉡		
개성	㉠	남색, 점퍼, 점퍼-짧은형 헤어스타일	캐주얼 재킷, 스웨터
	㉡	빨강	빨강
사교성	㉠	점퍼, 짧은형 헤어스타일	캐주얼 재킷, 짧은형 헤어스타일
	㉡	빨강-스웨터	빨강-점퍼

10. 옷차림에 따른 연령 추론

옷차림에 대한 지각 연령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극물 연령을 종속변인으로, 24개의 자극물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19>에서 볼 때 자극물 연령은 총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자극물의 전체 평균을 보면 25.71세로 나타났다. 빨강색 스웨터를 입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자극물(자극물24)이 24.41세로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고,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하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자극물(자극물



13)이 27.02세로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복유형은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다른 의복에 비해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고, 점퍼 착용은 경우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표 19> 옷차림에 대한 추론 연령의 차이 (N = 626)

자극물번호	평균연령	F=2.09**				
24	24.41	a	b	c	d	e
23	24.94					
20	25.02					
21	25.17					
19	25.17					
18	25.21					
8	25.46					
17	25.52					
10	25.53					
16	25.59					
9	25.60					
22	25.65					
7	25.73					
12	25.98					
2	26.00					
4	26.00					
3	26.02					
15	26.15					
11	26.30					
6	26.31					
1	26.37					
5	26.66					
14	26.91					
13	27.02					

* $p < .05$, ** $p < .01$, *** $p < .001$ a, b, c, d, e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1.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2.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3. 남색 테일러드 재킷-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4. 남색 테일러드 재킷-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5. 베이지색 점퍼-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6. 베이지색 점퍼-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7. 남색 점퍼-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8. 남색 점퍼-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9.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와이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10.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와이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11. 남색 테일러드 재킷-와이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12. 남색 테일러드 재킷-와이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13. 베이지색 점퍼-와이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14. 베이지색 점퍼-와이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15. 남색 점퍼-와이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16. 남색 점퍼-와이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17. 빨강색 점퍼-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18. 빨강색 점퍼-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19. 베이지색 스웨터-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20. 베이지색 스웨터-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21. 남색 스웨터-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22. 남색 스웨터-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23. 빨강색 스웨터-티셔츠-짧은형의 헤어스타일
24. 빨강색 스웨터-티셔츠-중간형의 헤어스타일

색은 베이지색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빨강이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는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의 연구에서 순색이 어려워지고 채도가 낮은 색은 나이들어 보이는 인상을 가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11. 옷차림에 따른 직업 추론

자극물의 옷차림에 따른 직업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개의 자극물과 직업 추론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자극물의 의복차림에 따른 직업 추론의 차이 N(%)

자극물	직업추론				전체
	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전문직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	73 (11.0)	28 (16.0)	58 (18.8)	13 (12.1)	172 (13.7)
남색 테일러드 재킷	74 (11.2)	31 (17.7)	61 (19.8)	23 (21.5)	189 (15.1)
베이지색 점퍼	89 (13.4)	36 (20.6)	43 (14.0)	24 (22.4)	192 (15.3)
남색 점퍼	103 (15.6)	28 (16.0)	52 (16.9)	18 (16.8)	201 (16.1)
빨강 점퍼	56 (8.5)	13 (7.4)	36 (11.7)	10 (9.3)	115 (9.2)
베이지색 스웨터	90 (13.6)	19 (10.9)	14 (4.5)	3 (2.8)	126 (10.1)
남색 스웨터	89 (13.4)	10 (5.7)	21 (6.8)	8 (7.5)	128 (10.2)
빨강 스웨터	88 (13.3)	10 (5.7)	23 (7.5)	8 (7.5)	129 (10.3)
전체	662 (100.0)	175 (100.0)	308 (100.0)	107 (100.0)	1252 (100.0)
$\chi^2=87.34***$ $df=21$					

* $p<.05$, ** $p<.01$, *** $p<.001$



직업은 학생, 회사원, 전문직, 프리랜서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전문가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연구원, 교수, 의사, 법관 등으로 간주하였다.

<표 20>에서 자극물의 옷차림과 직업추론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 빨강색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은 프리랜서라고 추론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색 테일러드 재킷과 베이지 점퍼를 착용한 모습은 전문직 종사자로 추론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웨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색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생으로 추론되어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은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 차림보다 학생답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12.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직업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각 이미지 평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와 같다.

<표 21>에서 볼 때 여대생의 옷차림 선호에는 능력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사교성, 활동성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36.6%였다 즉 여자 여대생들은 능력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의복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직장여성은 능력이 가



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활동성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2개의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43.7%였다. 즉 능력있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능력과 활동성은 여대생과 직장여성 모두에게 옷차림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서 능력 있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취업을 앞 둔 여대생과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중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교성 이미지의 경우 직장여성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여대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은 사교적인 이미지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여대생 beta	R ²	직장여성 beta	R ²
단정성	-	R ² =.366	-	R ² =.437
능력	5.12**		4.79**	
활동성	4.30**		2.04**	
개성	-		-	
사교성	4.80**		-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의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이미지지각의 차이를 알아보며, 자극물 제작방법과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셔츠종류,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48개의 자극물을 실물사진과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자극물로 제작하였다. 준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여성들로서 여대생 360명과 직장여성 266명으로 총 626명이었다.

1. 남성 캐주얼웨어의 이미지 지각의 차원

요인분석 결과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단정성,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2. 의복유형㉔(테일러드 재킷, 점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첫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㉔,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은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의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능력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복유형은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의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



었다. 재킷은 점퍼보다 능력, 개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헤어스타일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정성, 능력, 개성,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사진자극물은 청바지에 점퍼 착용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그림자극물은 청바지에 테일러드 재킷을 착용했을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사진자극물의 경우 그림자극물보다 점퍼가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능력과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사진자극물인 경우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평가되었고, 그림자극물인 경우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평가되었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더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요인의 평가는 의복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개성 요인에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남색은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더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활동성 요인은 의복유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테일러드 재킷은 베이지색일 때, 점퍼는 남색일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셔츠종류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셔츠종류는 활동성 요인의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티셔츠가 와이셔츠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테일러드 재킷은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능력 있고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속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단정성과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 의



복유형㉔, 셔츠종류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단정성 요인은 의복유형 전반에 걸쳐 그림 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나, 점퍼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에 있어서는 사진자극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능력 요인은 사진자극물인 경우 의복유형과 셔츠종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극물인 경우 테일러드 재킷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다.

3. 의복유형㉔(점퍼, 스웨터)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첫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점퍼, 스웨터),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헤어스타일은 단정성, 개성, 사교성 요인의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며,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는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스웨터 착용은 점퍼에 비해 능력, 활동성, 사교성 요인이 높게 평가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모든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진자극물은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그림자극물은 단정성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㉔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청바지에 점퍼를 착용한 모습이 더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있었으며 사진자극물인 경우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지각되었고, 그림자극물인 경우는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이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활동성, 개성 요인에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㉔,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가 있었다. 그림자극물로 제시한 경우 의복유형④, 헤어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요인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자극물은 스웨터를 착용하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점퍼 차림에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개성 요인에서 보면 그림자극물인 경우 점퍼를 입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 한 모습이 가장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둘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의복색에 따라 단정성, 개성, 사교성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색은 단정성이 높게, 빨강은 단정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단정성 요인의 평가에서는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빨강은 그림보다 사진자극물의 경우 더 단정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베이지색과 남색은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단정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개성 요인은 그림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빨강이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사교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사진자극물에서는 빨강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가장 사교적으로 지각되었고, 남색 점퍼는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자극물에서 빨강 점퍼는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베이지색의 점퍼는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④,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지각자의 직업은 능력, 활동성, 개성 요인의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대생이 직장여성에 비해 자극물을 능력, 활동성, 개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넷째, 의복유형④,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단정성 요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은 남색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단정하게 지각되었고, 빨강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단정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의 경우 남색 점퍼를 착용했을 때 단정하며, 베이지색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단정하지 않게 지각되었다.

다섯째, 의복유형④,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단정성 요인과 개성요인은 의복색과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여대생은 직장여성보다 베이지색을 더 단정하게 지각하였으나 개성은 낮게 지각하였다. 단정성 평가에서 의복유형④, 의복색, 지각자의 직업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여대생들은 남색 스웨터 착용을 가장 단정하다고 평가하였고, 직장여성들은 남색 점퍼 차림을 가장 단정하다고 평가하였다.

4. 옷차림에 따른 지각대상자의 연령 및 직업추론의 차이

첫째, 옷차림에 따라 연령 추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빨강 스웨터를 입고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인물은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고,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하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인물은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빨강색이나 스웨터착용은 연령이 낮게, 베이지색이나 점퍼착용은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둘째, 옷차림과 직업 추론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과 빨강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은 프리랜서로, 남색 테일러드 재킷과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한 자극물은 전문직 종사자로, 스웨터 착용자는 학생으로 추론



되었다.

5.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여대생은 능력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직장여성들은 능력있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옷차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사진이나 컴퓨터그림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는 외모단서에 따라 다양하게 지각되었으나 그림이 사진보다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보다 이미지 지각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에 비해 좀 더 본인의 모습과 비슷하고 친근하며 이미지의 왜곡도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 방법 자체의 영향보다는 의복유형에 영향을 받는 편이었다. 단정성 요인의 평가에서는 자극물 제작방법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복단서와 외모단서가 결합된 경우 그림자극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그림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옷의 윤곽선, 그림자, 형태 등이 많이 다듬어져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의복유형이 동일하다 하여도 자극물의 제작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이미지 지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극물의 경우 테일러드 재킷 착용이 활동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사진자극물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점퍼 착용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자극물의 제작방법에 따라 관찰자가 지각하는 착용자의 이미지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앞으로의 이미지 관련 연구에서는 사진, 그림, 컴퓨터그림 등 자극물의 제작방법에 더욱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유형 중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를 비교할 경우 테일러드 재킷은 능력있게, 점퍼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점퍼와 스웨터의 비교의 경우, 스웨터 착용이 점퍼 착용보다 능력, 활동성,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점퍼는 어떤 의복유형과 비교가 되어지는가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극물 제작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테일러드 재킷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능력있게, 점퍼 속에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빨강색은 개성적이고 사교적이며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처럼 몇몇의 의복유형과 의복색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기대를 갖게하여 고정관념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각자도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를 보였다. 여대생이 직장여성보다 같은 얼굴의 자극물을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달리 평가하였으며 자극물 제작방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물 제작시 사진자극물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캔을 받아 사용하였다. 사진자극물은 한 가지 색상이라도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자극물은 음영을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있어 두 자극물의 의복색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그림자극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실물사진과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극물 제작에 있어 모델을 한 명만 선정하고 의복 유형별로 한 벌



씩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특정 인물과 의복을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또한 옷차림을 캐주얼웨어로 한정시켰으며, 다양한 의복유형과 의복색의 단서들을 조합하지 못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두 명 이상의 모델과 다양한 디자인의 자극물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셔츠종류와 하의도 다양하게 하여 의복색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셋째, 표본집단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여대생과 직장여성으로 한정하였고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표집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계층과 연령층 및 남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 및 직업, 성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얼굴을 포함한 자극물로 제작되어 착용자의 이미지평가를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얼굴과 의복 변인을 구분하여 독립변인으로 측정함으로써 얼굴과 의복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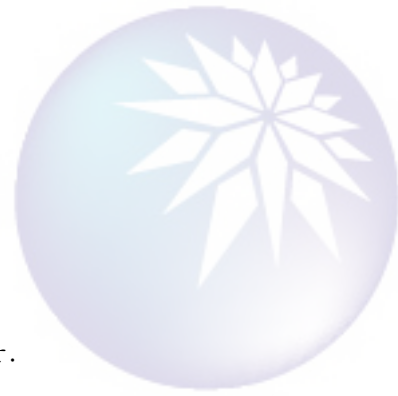
- 강봉규(1999). 심리학의 이해. 서울: 동문사. 482-483.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강혜원, 이주현(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제1보) :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애란, 강혜원(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2), 45-52.
- 권석만(2002).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 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김은영(2000). 현대사회와 의복. 서울: 도서출판 하우, 93-96.
- 김광경(1991).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구자(2003). 한국 성인 남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1338-1349.
- 김미영(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6.
- 김양휴(1996). 패션헤어스타일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강경자(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은경, 김옥경, 한자영(2000). 현대생활 속의 패션. 서울: 학문사, 63-75.
- 김인숙, 신소진(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501-514.
- 김재숙(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숙, 김희숙(2004).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 복식문화연구, 12(1), 28-40.
- 김재숙, 류지원(2004).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1320-1328.
- 김재희(1994).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태도와의 상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2). 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402-408.
- 김현지(2003). 남성 선거 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우(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남윤자, 이형숙(1996). 남성복 연구. 서울: 교학사., 47, 139, 250.



- 도주연(1992).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은(2001). 여성의 의복스타일이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1993). 의복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대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천, 이순홍(2003).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디자인 (제2보). 한국위류학회지, 27(11), 1260-1269.
- 박영실(1999). 의복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 의복실루엣, 의복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 김영숙, 나미향(1998). 현대생활과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120-121.
- 방희선, 고애란(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1-10.
- 송선옥(198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선옥, 이인자(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신상옥, 오경화, 이선희, 나영주(1999). 현대 패션과 의생활. 서울: 교문사, 97-103.
- 신소진(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정(2000). 웨딩드레스 이미지 선호도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 여대생



- 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부자(1999). 의복과 환경. 서울: 교문사, 185-202.
- 오세진, 김형일, 임영식, 현명호, 김병선, 김정인, 김한준, 양병화, 이재일, 양돈규, 최창호, 이장한(1999).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 학지사, 78, 247-248.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성(2001).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_____ (2002).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명희, 유경숙(1998). 외향성-내향성, 성별 및 연령과 의복이미지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05-114.
- 이명희, 홍선옥(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 디자인학회지, 6(3), 55-66.
- 이미숙(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연, 이명희(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
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724-735.
- 이선경(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재(2001). 대학생의 패션 코디네이션 사례 연구. 디자인학연구집, 서울디자
인포럼학회, 7(2), 172-188.
- 이은미(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
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미, 강혜원(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
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97-210.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55-88.
- 이정교(2000). 의사가운의 형태 및 색상과 관찰자 특성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
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
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74.
- 이주현, 강혜원(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



- 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공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지윤(2003).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컬러선호도: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비즈니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안현숙, 김선희(2000). 21세기 패션 정보. 서울: 일진사, 48-55.
- 이향미(1995).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혜자(1971). 한국인의 색채기호에 관한 연구 (I), (II).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1집.
-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2002). 현대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168-195.
- 임정은, 이명희(1999). 직장남성의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관계연구.



- 복식문화연구, 7(5), 80-92.
- 임지영(1996).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창재(1998). 심리학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317-318.
- 장애란, 안명숙, 박우미(2000).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예학사, 118-123.
- 장현갑,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정봉교, 이광오, 도경수(2004).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80-282.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호경, 황선진(1998). 직장상황 임신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706-715.
-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현주(2002). 우리 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6(7), 1105-1113.
- 조정미(1999).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 Street Color Research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2), 1-11.
- 주소현, 이경희(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78-89.
- 최유진(2003).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변화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타이콘 패션연구소(1997). 남자의 옷 이야기2: 캐주얼웨어 및 액세서리 편. 서울: 서광사.



표유경(1999).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섬유신문. 2002. 3. 21.

한규적(2004).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황미선(2004). 남녀 대학생의 캠퍼스웨어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미선, 이명희(2005). 남녀 대학생의 캠퍼스웨어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55(1), 139-150.

Allport, G.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Co. p. 500, cited by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59.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1946). *Social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Behling, D. (1995).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urban schools with minority populat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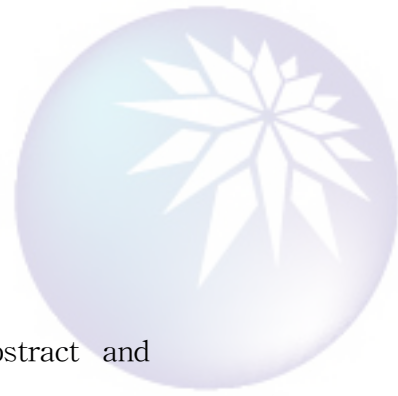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Butler, S., & Rossel, K.(1989).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57-59.

-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r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327-336.
- Douty, H. I. (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
- Francis, S. K., &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64(2), 383-390.
- Gibbins, K. & Coney, J.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s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3), 720-722.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Hoult, T. F. (1954).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factor in some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 *American social review*, 19(3), 324-328.
- Johnson, B. H., Nagasawa, R. H., & Peters, K. (1977). Clothing style difference : The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58-63.
- Lennon, S. J. &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41-48.



- Lind, C. (1993). Psychology of color: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57-64.
-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Book, Inc.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Radeloft,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studen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 Rees, D. W., Williams, L., & Giles, H. (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gy*, 5, 1-7.
-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321-336.
-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139-150.
-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40-48.



Abstract

The Effect of Photograph and Computer Picture on Men's Image Perception

Seung-Hee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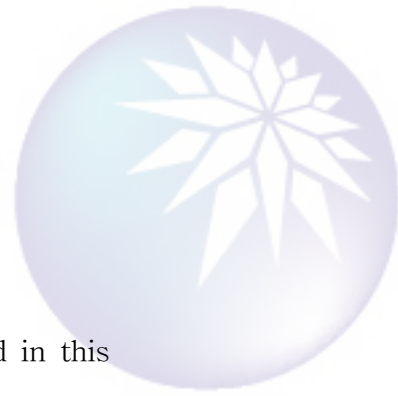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imulus-manufacturing method on image perception. Computer simulation and photograph were used as the stimuli. It was investigated whether perceiver's job, clothing style, color, hair style, and shirt style in stimuli give any difference and interaction effect on men's impression formation.

Jacket, jumper, and sweater were used as clothing types. Clothing type[Ⓐ] represented the combination of tailored jacket or jumper with jean, and clothing colors were beige and indigo. T-shirt and dress shirt were used as shirt style under the jacket or the jumper. Two hair styles of short and middle type were also compared. In clothing type[Ⓑ], T-shirt under jumper or sweater was depicted, and beige, indigo, and



red were used as clothing color. Jobs of wom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emale college student and office worker. Like clothing type[ⓐ], short and middle hair styles were used and compared. 48 stimuli showing male suit-wearing individuals and questions examining the responses of perceivers to the stimuli were used as the investigation tool for this study.

Subjects were 626 women which were 360 college students and 266 office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One subject was responded to two stimuli. Each subject was required to choose the most proper adjective which described the image from the stimuli. SPSS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factor analysis, Cronbach's *a* reliability, three-way ANOVA, two-way ANOVA, χ^2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image of men's casual wear was derived into five factors: neatness, ability, activity, individuality, and sociability.

2. The difference of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clothing type (jacket and jumper) was investigated. Jacket was evaluated higher in capability, individuality, and sociality than jumper. Jumper was evaluated higher than jacket in activity. The photograph stimulus was more positively in activity, individuality,



and sociability than the picture stimulus.

In the photograph stimulus, jumper was evaluated more positively in all factors except for individuality. dress shirt under the jumper, short hair style, and indigo color were evaluated higher in neatness, ability, and individuality, respectively. In the picture stimulus, jacket was evaluated more positively in all factors except for activity. Middle type hair style and beige was evaluated higher in ability and individuality, respectively. While dress shirt under the jacket was evaluated higher in ability and individuality, T-shirt under the indigo jumper was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In all stimulus manufacture methods, jumper and short type hair style were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and in sociality, respectively.

3. The difference of image perception by clothing type (jumper and sweater) was investigated. As the result of this, sweater was perceived as "competent", "active", and "individual". Red and short type hair style was evaluated higher in individuality and sociality. Beige was preferred as neat color by college students and indigo was by workers. While short type hair style was perceived as "neat" in the case of indigo sweater, middle type hair style was



in the case of indigo jumper.

The picture stimulus was perceived more positively in all factors except for neatness. The combination of short type hair style and jumper was evaluated higher in individuality, and red sweater was in sociality. In the picture stimulus, the combination of short type hair style and sweater was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and individuality, and red jumper was in sociality.

4. While the stimulus of a middle length of hair style with red sweater was perceived as the youngest, a short hair with dress shirt under beige jumper was perceived as the oldest. While the individual who wore beige jacket or red jumper in the stimulus was inferred as a free-lancer, the individual who wore indigo jacket or beige jumper was inferred as the professional. In addition, the individual who wore sweater was inferred as a student.

5. While college students preferred the appearance which was evaluated high in ability, sociality, and activity, office workers preferred the appearance which was evaluated high in ability and activity.



<부록 1> 표집 대상자의 분포

(%)

여대생		직장여성	
건국대	49(13.61)	간호사	26(9.77)
배화여대	72(20.00)	교사 및 강사	40(15.04)
성신여대	78(21.67)	보험설계사	55(20.68)
숙명여대	43(11.94)	은행원	82(30.83)
승의여대	118(32.78)	회사원	63(23.68)
계	360(100)	계	266(100)



11. 전문적인 -----1 - 2 - 3 - 4 - 5 - 6 - 7 --전문적이지 않은
12. 개성 있는 ----- 1 - 2 - 3 - 4 - 5 - 6 - 7 -- 개성 없는
13. 노련한-- ----- 1 - 2 - 3 - 4 - 5 - 6 - 7 -- 미숙한
14. 활동적인-----1 - 2 - 3 - 4 - 5 - 6 - 7 -- 비활동적인
15. 세련된 ----- 1 - 2 - 3 - 4 - 5 - 6 - 7 -- 촌스러운

16. 지적인 ----- 1 - 2 - 3 - 4 - 5 - 6 - 7 -- 지적이지 않은
17. 단정한 ----- 1 - 2 - 3 - 4 - 5 - 6 - 7 -- 단정하지 않은
18. 점잖은 ----- 1 - 2 - 3 - 4 - 5 - 6 - 7 -- 점잖지 않은
19. 눈에 띄는 ----- 1 - 2 - 3 - 4 - 5 - 6 - 7 -- 눈에 띄지 않는
20. 깔끔한 ----- 1 - 2 - 3 - 4 - 5 - 6 - 7 -- 깔끔하지 않은

21. 답답한 ----- 1 - 2 - 3 - 4 - 5 - 6 - 7 -- 편안한
22. 자신감 있는 --- 1 - 2 - 3 - 4 - 5 - 6 - 7 -- 자신감 없는
23. 캐주얼한 ----- 1 - 2 - 3 - 4 - 5 - 6 - 7 -- 포말한
24. 보기 좋은 -----1 - 2 - 3 - 4 - 5 - 6 - 7 -- 보기 싫은
25. 차분한 ----- --1 - 2 - 3 - 4 - 5 - 6 - 7 -- 요란한

II. 이 그림 인물의 적합한 연령을 생각해 보고, 연령을 기입하십시오. ()세

III. 이 그림 인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직업, 신분)으로 보입니까?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프리랜서() ④ 전문직()



I. 제시된 그림의 의복 인상에 대하여 다음 형용사의 해당되는 정도를 생각해 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V) 하십시오.

<의복번호= 의복 >

- | | 매우
그렇다 | 1 | 2 | 3 | 4 | 5 | 6 | 7 | 매우
그렇다 | | | | | | | |
|------------|-----------|---|---|---|---|---|---|---|-----------|---|---|---|---|---|-----|----------|
| 1. 남들과 다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남들과 비슷한 |
| 2. 신중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경솔한 |
| 3. 사교적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비사교적인 |
| 4. 예의 바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예의 없는 |
| 5. 적극적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소극적 |
| 6. 내가 좋아하는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내가 싫어하는 |
| 7. 유능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무능한 |
| 8. 품위 있는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품위 없는 |
| 9. 무난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무난하지 않은 |
| 10. 자연스러운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부자연스러운 |
| 11. 전문적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전문적이지 않은 |
| 12. 개성 있는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개성 없는 |
| 13. 노련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미숙한 |
| 14. 활동적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비활동적인 |
| 15. 세련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촌스러운 |
| 16. 지적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지적이지 않은 |
| 17. 단정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단정하지 않은 |
| 18. 점잖은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점잖지 않은 |
| 19. 눈에 띄는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눈에 띄지 않는 |
| 20. 깔끔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깔끔하지 않은 |
| 21. 답답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편안한 |
| 22. 자신감 있는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자신감 없는 |
| 23. 캐주얼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포말한 |
| 24. 보기 좋은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보기 싫은 |
| 25. 차분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요란한 |

